

CMI TIMES

**ISSUE 2.1
(DIGITAL)**

Contents

<p>2021 GLOBAL CMI GENERAL ASSEMBLY REPORT</p>	— 04 —	<p>2021 GLOBAL CMI 총회 보고</p>
<p>2021 EUROPEAN CONFERENCE REPORT</p>	— 14 —	<p>2021년 유럽 수양회 보고</p>
<p>I-NATION CMI 2021 5TH SOUTH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REPORT</p>	— 20 —	<p>I-NATION CMI 2021 제 5회 남아시아 국제 수양회 보고</p>
<p>2021 CMI OCEANIA ONLINE SUMMER CONFERENCE REPORT</p>	— 28 —	<p>2021 CMI 오세아니아 온라인 여름 수양회 보고</p>
<p>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 NEWS</p>	— 36 —	<p>아르헨티나 여름 수양회와 최근 뉴스</p>
<p>2019 CHILE MISSION REPORT</p>	— 42 —	<p>2019 칠레 선교 보고</p>
<p>ITALY MISSION REPORT & NEWS</p>	— 48 —	<p>이탈리아 선교 보고 & 선교사님들의 소식</p>
<p>K NATION MISSIONARY TESTIMONY</p>	— 56 —	<p>K-NATION의 선교사님의 간증</p>
<p>EUROPEAN MISSIONARY EDUCATION REPORT</p>	— 64 —	<p>유럽 선교사님들의 교육 세미나 보고</p>
<p>CMI'S 50 YEAR HISTORY OF WORLD MISSION</p>	— 68 —	<p>CMI 세계선교 50년 역사</p>
<p>GLOBAL CMI NEWS REPORT</p>	— 80 —	<p>GLOBAL CMI 소식 보고</p>



C H A P T E R O N E

2021 GCMII GENERAL ASSEMBLY REPORT

2021 GLOBAL CMI
총회 보고

2021 GCMI General Assembly Report

Mark Hong (General Secretary)

GCMI (Global CMI) established on January 16th, 2020 in Sydney, Australia. The Continental Representatives (CR) prepared for this through monthly zoom prayer meetings (September 2018 thru December 2019). Right after the launching of GCMI, we immediately faced the COVID-19 Pandemic. It spread rapidly all over the world. This pandemic greatly affected our CMI missionaries, for many of them are self-supporting missionaries. Our network services of prayer and of caring for their practical needs were very effective. We also launched the website and published the CMI Times twice to share the work of God among our missionaries. As I look back at GCMI's past year of network services, I am fully convinced that God Himself started it and did His work among us. Praise be to the Lord!

For that reason, our General Assembly (GA) was the celebration of God's grace among us and the planning for better network services in the future. The CR members, presidential team and missio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prepared for the GA with a lot of prayer. We prayed that the GA may not be a business meeting but worship to the Lord God. We prayed, planned, and prayed some more.

Since there are missionaries in different time zones with big time differences, we decided to have three GA meetings. Our first one was for Asia and Australia (2/20 1:00pm in Korea). The second one was for Europe and North, Central and South America (2/20 10:00am CST in the US) and the third one was all together (2/27th 6:00am CST US).

The first assembly was opened with the praises by I-Nation. President John Shin gave the welcome address based on Acts 1:8 with the title, "The Wind of the Holy Spirit against the Wind of the COVID-19 Pandemic". We praised the Lord that God allowed us to have the wind of the Holy Spirit in our prayer, support, educational and raising-young-leaders network. M. Peter Chang gave a special lecture with the title, "A Great Nation" (Gen 12:2-3). According to the lecture, we learned that God called us to be "a great nation." Being 'a

great nation' means that we become great in keeping the way of the Lord and being like Him in character. We then can be a blessing wherever we are. This lecture was a great blessing in that we renewed the fundamental call of God. We heard mission reports from the CMI's in Korea, C-Nation, I-Nation, Bangladesh and Australia. We finished with a united prayer for each continent. We had about 170 participants.

The second assembly was opened with gracious praises led by M. Caleb Choi of Germany. M. John Shin gave the same address and M. Peter Chang the same lecture. We heard reports from the CMI's in Myanmar, Europe, Germany and North, Central and South America. Again, we ended with united prayers. We had about 120 participants.

The third assembly was at 6:00am CST. It meant 11:00pm in Sydney, Australia and the following day was Sunday (the Lord's Day). So, we planned to have a short assembly. Isaac Koh served the third assembly as presider. It was opened with the prayerful praises led by Angela Park (a music minister of Madison CMI). We then had united prayer, which was suggested by Isaac Koh. There was Quorum Check; the total number of active members is 266 and 84 attended (32%). So, the required quorum (20%) was met. Isaac Koh read the minutes of the Inaugural Assembly from the 2020 Sydney Ceremony. It passed unanimously.

Mark Hong, General Secretary reported based on Zechariah 4:6,7 and Deuteronomy 32:30. He shared about the three stages of GCMi's birth and the four core values, last year's activities and future prospects. He concluded that God started this global network, God powerfully worked among us and through us, and God will lead us. He encouraged us to network more, seek revival in every continent and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for God's glory.

Zechariah Han presented the Financial Report. His report brought lot of smiles as he reported it with lots of humor. We praised God for our missionaries' sacrificial giving (\$120,000) and prompt and effective support for the mission fields in need. The report and the new year's budget was also passed

unanimously. Georg Park presented the audit report. He gave the full confirmation of the accounting report. It also passed unanimously.

Each Committee's Report:

1. Media Committee (Timothy Lee): Digital news every month and CMI Times to be published twice a year.
2. Education Committee (Jung Oh Gu): The European missionaries had already started. Specialists will be recruited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3. Young Leaders Committee (Abraham Lee): Some young leaders were recruited and started networking, which consists of members from each continent.
4. Mission Support Committee (Samuel Lee): Find both the spiritual and practical needs of mission fields and missionaries and support them financially and with prayer.
5. Health Care Committee (Daniel Shin): Provide medical advice and even provide medical treatment.
6. Research Committee (Peter Suh): Collected CMI's historical resources and is now doing research on our development and growth.

Mark Hong presented the announcements. We were thankful for the works of God and all of the missionaries and leaders.

We then prayed all together:

1. to be a great nation wherever we are (Gen 12:2).
2. for the committees' vital work.
3. for church planting: Andres Lee (Florencio Varela, Argentina).
4. for Hong Kong mission through Sungwon, C-Nation and Yena.
5. for peace and the protection of the CMI ministry in Myanmar.

The general assembly was concluded with a powerful prayer and benediction by Pastor Kwang Ok Koh.

* We appreciate Isaac Koh, Prakash Singh, Gustavo Salas, and Allison Rodriguez who served as interpreters during our general assembly.

2021 GCMI 총회 보고

홍마가(사무총장)

GCMI (Global CMI)가 2020년 1월 16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이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달 줌 화상 미팅을 통하여 대륙별대표님들의 기도하였습니다. 2020년 창립총회가 끝나자마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하여 전세계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은 대부분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저희는 기도의 네트워크, 물질후원의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돕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웹사이트를 활성화하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누고 CMI Times를 두번 발행하여 선교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GCMI를 창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해 일하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첫 총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적인 논쟁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되도록 대륙별대표 기도모임, 회장단 기도 모임, 각 대륙별 선교사 기도모임을 갖으며 준비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각 대륙별 시차가 커서 우리는 총회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상으로 한번(2월 20일 한국시간 오후 1시), 유럽과 중남미 북미를 대상으로 두번째 모임(2월 20일 미국 중서부 시간 아침 10시), 세번째 총회(2월 27일 미국 중서부 시간 아침 6시)는 전체가 함께 갖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첫 총회는 1국의 그리스도 군사의 스피릿이 충만한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장이신 신요한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1:8에 기초하여 코로나 19전염병에 대항하는 성령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특강을 “A Great Nation” (창 12:2-3) 으로 섬기신 피터장 선교사님은 아브라함을 “A Great Nation”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며 그럴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이 될 것이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강의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 CMI, C국, I국, 방글라데쉬, 호주의 은혜로운 보고를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첫 총회는 17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둘째 총회는 독일 최갈렙 선교사님의 경쾌한 찬양 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요한 선교사님의 인사말과 피터장 선교사님의 특강은 같은 내용이었고 이 날은 미얀마, 북미, 중남미, 유럽, 독일 CMI 선교보고를 들었습니다. 둘째날은 약 1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셋째 총회는 미 중서부 아침 6시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 시간이 호주 시드니는 밤 11시였습니다. 다음날이 주일인지라 아주 간략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날은 매디슨 CMI의 음악전도사인 박인혜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이삭 선교사님이 사회를 맡아서 모든 참석하신 분들이 먼저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 하도록 제안하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사무총장인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정족수 확인 결과 전체 총회 회원 266명 중 84명(32%) 참석으로 정관의 규정사항인 20% 이상이 충족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고이삭 선교사님의 전총회 회의록 낭독과 이에 대한 동의 재청과 전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홍마가 선교사의 사무총장보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4:6,7과 신명기 32:30 말씀에 기초하여 GCM의 출범이 있기까지 3단계와 4가지의 핵심가치, 작년 한해의 사역과 장래 사역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그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더욱 가까이 네트워크를 하는 가운데 각 대륙마다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의 지상명령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재정보고는 한사가랴 목사님의 위트 넘치는 보고로 풍성한 웃음과 기쁨을 모두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네트워크를 미화 12만불을 모금하여 선교지를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재정보고와 새해 예산은 반대없이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감사보고는 독일의 게오르규 선교사님이 아무 하자 없이 재정이 집행되었음을 보고하고 감사보고도 전체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각 위원장들의 위원회 활동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1. 미디어 (Timothy Lee): 디지털 뉴스 매월 발행하고 CMI Times 일년에 2회 발행.
2. 교육 (Jung Oh Gu): 유럽에서는 이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각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3. 차세대 리더 양성 (Abraham Lee): 자원한 리더들 3-4 명이 이미 모임을 한차례 갖었고 전 대륙별 대표를 곧 확정지어 자발적인 모임을 이루고자 함.
4. 선교지원부 (Samuel Lee): 선교지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찾아서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이루고자 함 (대륙별 위원들이 결정됨).
5. 선교사 헬스케어 (Daniel Shin): 메디컬 카운셀링과 선교사들의 실질적인 치료를 현지나 본국 방문시 실비로 받도록 돕고자 함.
6. 연구위원회 (진용인): 역사적 자료 발굴하여 역사성을 심고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구를 계속한다.

사무총장 홍마가 선교사의 광고 우리와 지난 한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충성하신 선교사님들께 대한 감사에 이어 새롭게 우리 네트워크에 동참한 김저스틴목사님 부부와 한광훈 목사님을 환영하였습니다. 2세 선교사인 강성원, 차이나 그리고 3세 선교사 예나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1.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A Great Nation'으로 세워져서 부흥을 이끌도록.
2. 각위원회의 활발한 사역이 부흥의 초석이 되도록
3. 이안드레 선교사님의 교회개척 (Florencio Varela, Argentina).
4. 홍콩의 강성원, 차이나 그리고 3세 선교사 예나의 선교사역
5. 군부 쿠데타로 소요가 심한 미얀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CMI 지켜주시도록.

맨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이신 고광옥 목사님의 파워풀한 기도와 축도로 모든 총회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 이번 총회에 통역으로 수고하신 고이삭, 프라카쉬님, 구스타보 목사님, Allison Rodriguez께 감사드립니다.



C H A P T E R T W O

2021 EUROPEAN CONFERENCE REPORT

2021년 유럽 수양회 보고

2021 European Conference Report

"A true worshiper dreams, prepares, and offers the best worship!"

From January 20, 2021 to January 22, 2021 (Wednesday to Friday), the 2021 European CMI Missionary Online Retreat was held in great grace. The Online Meeting attracted a number of people, 150 in total, not only from the European Union, but also from the United States, and from Korea.

The theme of the meeting, "breakthrough through worship", didn't seemingly resonate in the hearts of the attendees, since most of the attendees were veterans in the mission field with multiple years of field experiences for more than twenty years, even up to forty years. However, at this conference, the Holy Spirit broke the barrier of a stereotypical mindset and reset our hearts back to the essence of worship. The hearts of the attendees on the online platform became wide open through the praises and the sincere testimonies of "A Beautiful Story between Jesus and Me" by three sister missionaries (Sarah Nam-Italy, Esther Park-Germany, and Maria Lim-Turkey).

"God's joy" (Lev. 1:1-9): Missionary Abraham Lee (England, Poland) delivered the message of God's forgiveness and the grace of restoration. God received the sacrifice offering of bleeding the blood of innocent animals and poured out his grace of forgiveness on sinners, who were doomed to death out of sins and transgressions. The message guided the attendees to draw the beautiful picture of "the best worship" to God, which has the power of transferring us from uncleanness to holiness.

"The Decision to Worship" (Psalm 27:4): Missionary Stephanus Park (Dresden, Germany) took the example of David, who had a deep desire and determination to worship in any circumstances. He continued to encourage the audience to have a clear-cut determination to worship as David did, which would lead the worshippers, especially in the wilderness of a mission field, to experience God in truth and in spirit. We learned that a virtuous cycle occurs between our lives and worship, when we experience the grace, joy, and power which God would pour out on worshippers in the field of life.

"The time and object of worship" (John 4:20-24): Missionary Paul Moon (Milan, Italy) entreated the audience to take a whole-hearted worship at this place as if it were the last worship in life. The lecture reminded me of the non-tradable value of worship with anything else in the world and the attitude of worshipers who take the worship as of the first priority.

This summarizes the seminar: "worship is not a means of ministry, but rather the essence. The joy of fellowship with God and of worship is the ultimate purpose of mission and the driving force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attendees had time to examine whether they might have taken the worship as a mere tool for ministry, and thus neglected the joy of fellowship with God. This self-reflection led us to check on the worship of life and to repent of the sin before God that we used worship as a means for ministry. The Holy Spirit helped in his grace to make the determination to become a true worshiper who dreams, prepares, and offers the best worship.

This retreat was a gracious heavenly banquet with programs of praises, testimony-sharing, messages, and seminars. We were all pleased to see each other face to face, though in an online format, after a while. Our joy multiplied in a small group meeting on the last day when we shared the graces that we received through the retreat. CMI Europe will embark on an education program once a month after the retreat, and so this heavenly feast will continue. Thank you to all the missionaries who are working hard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in Europe and to all those who pray for missions in Europe.

Thanks and praises be to God who opened a new way of Ontact in the Corona Untact wilderness and allowed his grace upon us. We are grateful for the prayers and behind-the-scenes efforts of the Presidential Team, including Missionary Paul Kim, who relied on the Holy Spirit and served with one heart like the servants in the banquet of Cana in Galilee. We look forward to the beautiful season of Christ coming to Europe.

2021년 유럽 수양회 보고

"최고의 예배를 꿈꾸고 준비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

지난 1월 20-22일(수-금)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과 한국에서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CMI선교사 온라인 수양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파쇄와 돌파(Breakthrough)"가 수양회 주제였는데 선교지에서 20~40년 이상 예배를 사수한 전문가들에겐 깊이가 다가오지 않는 주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양회에선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리셋팅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양과 3명(남사라-이탈리아, 박에스터-독일, 이마리아-터키) 자매 선교사님들의 진솔한 "예수님과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간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참석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레1:1-9) 이 아브라함 선교사님(영국, 폴란드) 말씀을 통해 흠 없는 동물의 피흘리는 처절한 희생예배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을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예배"를 각자의 마음 속 깊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결단"(시 27:4) 박스테파누스 선교사님(독일 드레스덴)의 광야같은 선교지에서 예배자로서의 체험적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 선순환이 일어남을 배웠습니다.

"예배의 때와 대상"(요4:20-24) 문바울선교사님(이탈리아 밀라노)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드리라는 권고를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미룰 수 없는 예배의 가치와 예배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부산 미래로교회 구정오 목사님의 목회현장에서 검증된 실질적인 예배 세미나는 실질적인 좌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배는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하는 기쁨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나라 확장의

원동력”임을 배우고 예배를 혹여나 사역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과 기쁨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실제적인 삶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단시한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최상의 예배를 꿈꾸고 준비하고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을 하도록 도와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찬양과 간증, 말씀과 세미나 어느 것 하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천국잔치였습니다. 오랫동안 뵈지 못했던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마지막 날 소그룹 분반모임을 통해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니 받은 은혜가 배가 되었습니다. 수양회 이후에도 매월 1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 천국잔치는 끊임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Untact광야에 Ontact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잔치집 하인들처럼 겸손히 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김바울선교사님을 위시한 회장단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수고에 감사드리며, 유럽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C H A P T E R T H R E E

**I-NATION
CMI 2021 5TH
SOUTH ASIA
INT. CONF.
REPORT**

**I-NATION CMI 2021 제 5회
남아시아 국제 수양회 보고**

I-Nation CMI 2021 5th South Asia Int. Conf. Report

“Paul, the servant of Jesus Christ, was called to be an apostle, He was elected for the Gospel of God” (Romans 1:1)

Hallelujah, praise the good Lord!

I would like to greet CMI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all CMI shepherds in I-N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ation CMI held the 5th South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non-face-to-face for 4 days from December 31, 2020 to January 3, 2021. Even in the COVID-19 situation where everything in the world seems to have stopped, from March 2020, we quickly switched to online ministry and have served Bible studies, prayer meetings and worship services.

Looking back at the end of the year 2020 with the words of the Lord, we held a four-day conference with 860 I-Nation shepherds and sheep attending with a new word and vision with Romans 1:1 and Paul, the servant of Jesus Christ. Thanks and praise to God!

The 5th South Asi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of “Paul, the servant of Christ” was held from December 31, 2020 to January 3, with a total of 9 worship services for 4 days.

Through the conference, local shepherds from I-Nation, shepherd Pial and Parvez from Bangladesh, Pastor Kang-ju Lee from Korea, Missionary Mark Hong from the United States, Missionary Peter Chung, Missionary Isaac Min from Australia, and Shepherd Andreas Schmeinck from Germany, Pastor Gustavo Salas from Argentina delivered a message of determination. In addition, Shepherd Bobby from Bangladesh, Pastor David from Myanmar, Missionary Georg from Germany, Missionary Isaac Goh from America, Missionary Caleb Park from Australia, Shepherdess Sabita from Korea, and Missionary Ruth from Argentina shared each countries mission report for reading the working hand of God from all over the world.

All 860 members in I-Nation have once again decided to live as Christ's servants who fear God and please the one who

has called them. We deeply thank and praise God for His passionate love and grace!

Through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online, we were able to experience God who loves the sheep of I-Nation and holds them strong to come forward to His Word.

There were still many obstacles, such as the persecution of other Hindu god-believing families, the practical difficulty of not having a smartphone despite receiving a lot of help, and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securing a network or smart device. The Lord, who accepted prayer and devotion for the sheep who were un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and the wishes of the sheep who longed for the Word, opened the way to everyone in their best way, and through the process, many people gave grace and testimony.

Our CMI I-Nation mostly consists of I-Nation shepherds and sheep who follow Jesus alone from families who believe in Hindu gods. In the meantime, listening to the words of Jesus Christ through online and participating in worship in a small house where the whole family lives together is a situation where we have to endure much greater persecution than we think. However, God made every effort to make four or five people gather with one smartphone and call sheep to a nearby park or vacant lot to attend the conference through their smartphones.

All leaders have one day one hour walking prayer because there is nowhere to pray. It is walking outside the house for an hour every day and praying. It is to pray out loud as if you were calling someone. Through this, our I-Nation shepherds maintain their spiritual power and allow them to live the lives of Christ's servants like the apostle Paul. Through this conference, God gave each of them a new word and vision of God in 2021. We are taking steps of passion not only for evangelization in I-Nation but also for evangelization in the world.

Praise God for leading the South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giving us a new direction and vision for the 2021 New Ye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our co-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Germany, Argentina, and Korea who have participated, taught, and helped us in missions in I-Nation over the past year.

God's new vision and prayer topics given through our conference are as follows:

1. 5,000 1:1 Bible studies every week and 2,500 people attending Sunday worship service
2. Daily reading of the Bible on 7 pages and walking for 1 hour with prayer
3. 15 new centers opened; from 35 currently to 50 centers.
4. Fostering 2 core disciples per leader
5. Among the leaders, 100 undergraduate programs, 30 masters programs, and 5 doctoral programs enroll

Thank you!

I-Nation CMI 2021 제 5회 남아시아 국제 수양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1)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 CMI 선교사님들께 I-Nation CMI의 모든 목자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I-Nation CMI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3
일까지 4일간 제 5회 남아시아 국제 수양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COVID-19
상황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사역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말씀공부와 기도모임, 예배 등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2020년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새해를 로마서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새로운 말씀과
비전을 갖고 860명의 I-Nation 목자들과 양들이 참석한 가운데 4
일 간의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제 5회 남아시아
국제 수양회>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 동안 총
9번의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I-Nation 현지 목자들과 방글라데시의 피알,
파베즈 목자, 한국의 이강주 목사님, 미국의 홍마가 선교사님,
정베드로 선교사님, 호주의 민이삭 선교사님, 독일의 안드리아스
슈마이크 목자님,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 살라스 목사님들이
결연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글라데시의
보비 목자님, 미얀마의 데이빗 목자님, 독일의 게오르그 선교사님,
미국의 고이삭 선교사님, 호주의 박갈렙 선교사님, 한국의 사비타
목자, 아르헨티나의 룯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의 하나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각 국의 선교보고를 해주셨습니다.

I-Nation의 860명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국제 수양회를 통하여, I-Nation의 양들을 사랑하시고 강력하게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힌두신을 믿는 다른 가족들의 핍박,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네트워크나 스마트 기기 확보와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 등 장애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참석조차 불가능했던 어린 양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양들의 소원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희 I-Nation CMI는 대대로 힌두신을 믿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따르는 I-Nation 현지목자와 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에 온 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지내는 좁은 집안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를 감내해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네 명, 다섯 명이 함께 모이고, 주변의 공원이나 공터로 양들을 불러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수양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마음 다해 애쓰게 하셨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기도할 곳이 없어서 one day one hour walking prayer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집 밖을 1시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에게 전화하듯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목자들은 영력을 유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 된 자의 삶을 실천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각자에게 2021년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I-Nation복음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정의 걸음을 띠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국제수양회를 I-Nation해주시고 2021새해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가지로 I-Nation 선교에 참여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미국,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한국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수양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 비전과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주 5000개의 1:1 성경공부와 2500명 주일예배 참석
2. 매일 7페이지 성경읽기와 1시간걸기기도
3. 15개의 새로운 센터 개척; 현재 35에서 50개 센터로.
4. 리더 한 사람당 2명의 핵심 제자양성
5. 리더들 중 100명의 학사과정, 30명의 석사과정, 5명의 박사과정 입학

감사합니다!



C H A P T E R F O U R

2021 CMI OCEANIA ONLINE SUMMER CONFERENCE REPORT

2021 CMI 오세아니아
온라인 여름 수양회 보고

2021 CMI Oceania Online Summer Conference Report

Samuel Lee

First of all, I give praises and thanks to God who works wonders in any circumstances. Social distancing in COVID19 caused Oceania CMI to host the 2021 Summer Conference in the online space from January 5, 2021 to January 8, 2021.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the True Life,” and all lectures focused on one topic, who Jesus is, manifested in the Gospel of John.

To be honest, the online format of this conference fell short of raising much expectations for the results, in comparison to a normal face-to-face conference we had before. However, God did not stop working in an adverse situation to advance the ministry of salvation. After the conference, we had an evaluation meeting about the conference. And all of us were amazed at what God was doing in each district through the conference. The report is a recording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I learned through this conference.

First, God established the messengers among the young generation. Young generation messengers were responsible for delivering half of the messages, four out of the total eight. We were amazed at their powerful messages. After the conference was over, a missionary confessed, “Now I can retire comfortably since I see young messengers deliver a powerful message.”

Shepherdess Grace Pang from Melbourne delivered her first thematic lecture, 'In him was life'. As she digested the passage deeply, she revealed Jesus as the true life. She used the contrasting comparison between the true life in Jesus and the false life in the world.

Shepherd Jin Yong from Sydney delivered the words with the title, 'the Samaritan woman found a new life in Jesus', in John chapter 4. He took examples in explaining the limits of the waters in the world. And he powerfully conveyed that only the Holy Spirit, the living water from Jesus, can truly satiate our thirst and fill us with satisfaction.

Shepherd Minsoo Kim of Sydney gave the story of “the victorious life in Jesus” in John Chapter 5. He explained well how Jesus helped a thirty eight-year-old invalid who had no hope. He humbly conveyed that accepting and obeying the word of Jesus is the secret to spiritual growth and the way to experience a real change in our lives.

Based on John chapter 11, shepherd Moses Hwang of Monash delivered what 'The resurrection life' is. He communicated well with the audience and spoke about what the resurrection life in Jesus is. He applied the principle to his own life, revealing the words very graciously.

Missionaries delivered the remaining four thematic messages– Lecture 2: M. Paul Oh (The Word became flesh), Lecture 3: Caleb Park (You must be born again), Lecture 7: M. Samuel Lee (How to live a fruitful life), Lecture 8: M. Isaac Min (Feed my lambs).

In particular, missionary Peter Chang from the United States gave a special lecture. He used the text of Genesis 12:2 and shared about what the meaning of “a great nation” is. He explained this passage contained two elements: the command (Leave and Go) and the promis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that keeps the way of the Lord). This is the contents of the lecture: first, what is the nature of a great nation and second, how we should react, facing the inevitable conflicts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This special lecture was a fresh learning time for all of us as the audience.

Second, I can tell that the restoration of the testimony-sharing ministry characterizes this conference. From the first lecture, Haley of Monash shared a gracious testimony, which caused many of us to open our hearts and taught us how to write a testimony. Later, when we shared feedback on the conference, everyone was grateful to hear that many attendees from each branch were volunteering to write their testimonies. In particular, four youths from Brisbane shared their testimonies and encouraged all of us. We were grateful that the youth were growing well in the Word of God.

Third, this conference had effects of spiritual recovery and of unity at the same time in each branch. Last year, we faced many limitations due to the Corona-induced lock down. This year this online conference for four days and three nights led us to focus our attention to God more and to bind us all in one heart. Every attendee received much grace.

Inevitably we had unexpected technical problems several times during the online meeting, since this was our first trial to hold a conference in the online space. Nevertheless, the work of God's grace was constantly flowing, and the grace that God prepared for us all overflowed. I also think that despite the coronavirus situation, it was a great help for us to get together from each branch and to hold a nationwide conference. It instigated us to stay awake at an online retreat, though the temptation was there for the attendees to relax and to be easily distracted from the conference.

When the feedback meeting was held after the conference,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2022 conference. (planned to be held during January 12-15, 2022 in Melbourne)

1. To build up and train more Young Generation messengers.
2. To Invite people from more diverse countries to the conference.
3. For special lectures, to invite instructors from overseas through Zoom.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who is constantly making the work of salvation in Oceania and in the world. And thank you all for your prayer and love for Oceania CMI. All glory is rendered only to God.

2021 CMI 오세아니아 온라인 여름 수양회 보고

이사무엘

상황과 상관없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세아니아 CMI는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2021 여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수양회 주제는 'The True Life' 이었고 모든 강의는 요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야하는 것으로 인해 보통의 수양회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 우리는 수양회에 대한 피드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수양회를 통해 각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시는 일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배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수양회는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의 메신저를 굳건히 세워 주신 수양회였습니다. 8 개의 주제 말씀중에 4개를 Young generation 메신저들이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에 놀랐습니다. 수양회가 끝난 후 한 선교사는 '젊은 메신저들을 보니 이제는 편안하게 은퇴 할 수 있겠다' 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멜버른의 Grace Pang 목자는 첫 번째 주제 강의인 'In him was life'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깊이 소화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삶과 세상에 있는 거짓 삶을 비교하여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냈습니다.

시드니의 진용 목자는 요 4장에 나오는 'The Samaritan woman found a new life in Jesus'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 세상의 물이 주는 한계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시드니의 김민수 목자는 요 5장 에서 'The victorious life in Jesus'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38년된 병자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겸손하게 전하였습니다.

Monash의 황 모세 목자는 요11장을 통해 'The resurrection life'가 무엇인지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에 잘 전하였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드러내었습니다.

다른 4 개의 주제 강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 전했습니다. - 2 강: M. Paul Oh (The Word became flesh), 3강: Caleb Park (You must be born again), 7강: M. Samuel Lee (How to live a fruitful life), 8강: M. Isaac Min (Feed my lambs).

특히 미국에서 Peter Chang 선교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 12 : 2에 근거하여 'A great nation'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이 명령 (Leave and Go)과 약속 (주의 길을 지키는 a great nation) 이 두 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 great nation 의 본질과 세상 나라와 불가피한 갈등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특강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수양회의 특징은 간증역사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모나시의 헤일리가 나눈 은혜로운 간증은 많은 마음을 열고 간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수양회에 대한 피드백을 나눴을 때 각 지부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자원하여 간증을 쓴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감사해 하였습니다. 특히 브리즈번에서 온 4 명의 청소년들이 간증을 나눴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번 수양회는 각 지부에서 영적 회복과 동시에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3 박 4 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더욱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양회는 우리 모두를 한마음으로 묶어 주었고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초로 하는 온라인 수양회이기에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또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지부에서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온라인 수양회에서 함께 깨어서 수양회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양회 후 피드백 모임을 가졌을때 2022년 수양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2 ~ 15일 멜버른에서 개최됨)

1. 더 많은 Young Generation 메신저들을 세우고 훈련 시키기
2. 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수양회에 초청하기
3. 특강은 Zoom 을 통해 해외의 강사들을 초청하기.

지금까지 오세아니아와 세계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세아니아 CMI를 위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C H A P T E R F I V E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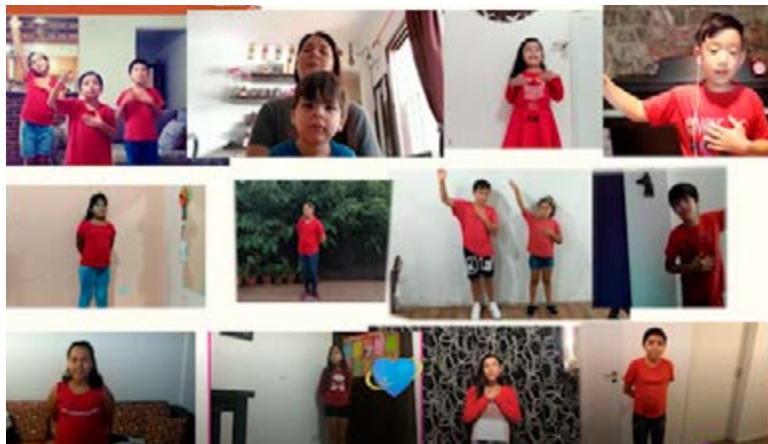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여름
수양회와 최근 뉴스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From February 13th to 16th we had the Buenos Aires Conference with the title "New Creation". It was not exactly an All-Argentinian Conference because the other churches had their own conference, like the Córdoba Conference and the Santa Fe Conference. But som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Argentinian missions used to participate in our Buenos Aires conferences. By the way, Argentina CMI has 6 churches: Buenos Aires, Córdoba I, Córdoba II, Santa Fe, San Justo and Florencio Varela.

More than 200 participants attended the conference from different provinces in Argentina, from Dominican Republic (Santiago), Bolivia, Brazil, Colombia, Peru, United States, Spain, Germany and Korea through Zoom.

During the conference, we had 13 Bible Study groups, 8 lectures, 11 testimonies, the baptism of 7 people, and a special song by the 3 Sunday Schools.



아르헨티나 여름 수양회 보고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Argentina CMI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Buenos Aires CMI가 주최하는 수양회이므로 전체 Argentina 수양회라고 말하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Córdoba나 Santa Fe CMI는 자체 수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Buenos Aires CMI가 수양회를 주최할 때 Argentina 각 CMI 지부들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저희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참고로 Argentina에는 6개의 CMI 지부가 있습니다: Buenos Aires, Córdoba I, Córdoba II, Santa Fe, San Justo & Florencio Varela.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Argentina의 곳곳에서, 그리고 Dominican Republic (Santiago), Bolivia, Brazil, Colombia, Peru, United States, Spain, Germany,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13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성경 공부, 8개의 강의, 11개의 간증, 7명의 세례, 그리고 주일학교 3학급의 특별활동으로 특송이 있었습니다.



Argentina News

On February 21st we had the missionary sending service for Missionaries Andrés and Rebeca Lee to Florencio Varela. On March 7th, they had their first worship service in their new church in Florencio Varela. Their prayer topics are that they may make disciples with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have new members, and evangelize Jauretche University.

On March 8th, Pastor Gustavo and Ruth Salas had their first son, Israel.

On March 14th, there was a baptism in Santa Fe. One sister was bapt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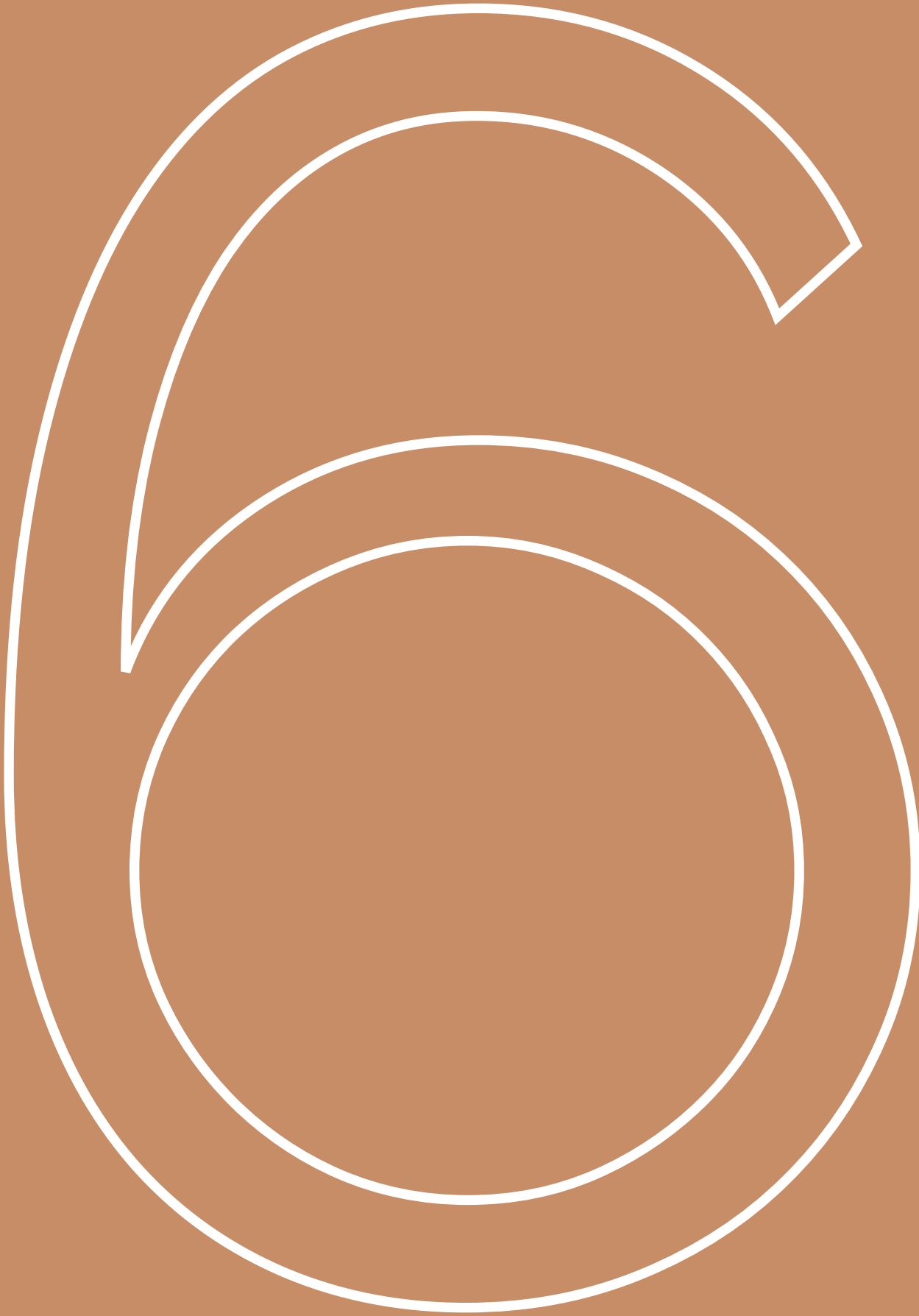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최근 뉴스

2월21일에는 Andrés and Rebeca Lee 선교사님을 Florencio Varela로 파송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3월 7일에 Florencio Varela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1)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도록, 2) 새로운 멤버들을 얻을 수 있도록, 3) Jauretche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입니다.

3월 8일에는 Gustavo & Ruth Salas 목자 가정이 첫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는 Israel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3월 14일에는 Santa Fe 교회의 한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C H A P T E R S I X

2019 CHILE MISSION REPORT

2019 칠레 선교 보고

2019 Chile Mission Report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구주 성탄의 은혜와 감격이 칠레선교동역자님들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깔레라(Calera) 지역에 7월 27일~10월 4일까지 전면봉쇄(lockdown) 조치를 내렸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했고, 1주일에 2번 외출 허가를 받으면 1번에 최대 3시간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자가 점차로 줄어들자 2단계로 10월 5일~25일까지 주말(토,일)은 전면봉쇄, 주중(월~금)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3단계로 10월 26일부터는 주말 전면봉쇄마저도 풀어지고, 마스크 착용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25명 이하의 소모임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칠레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자 깔레라보다 먼저 3단계에 들어갔던 수도 산티아고는 12월 10일부터 2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4단계로 나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될지 산티아고처럼 2단계로 다시 후퇴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깔레라 지역에 전면봉쇄가 풀리고 2단계가 시작되자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1:1로 성경공부하는 것은 전면봉쇄 때도 중단 없이 계속 했습니다.) 3단계가 시작되자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대면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해서 10월 말부터 다시 금요일예배, 주일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멀리 사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Meet”으로 예배모임에 초청하여 대면,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이티 형제들이 스페인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성탄예배 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4명의 -Nelson(68세), Oscar(58), Leticia(46), Ana(77)- 형제자매들이 12월 27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공부를 5강(구원,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준비해서 매주마다 1:1로 섬기고 있습니다. 넬슨 형제는 카톨릭과 안식교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3번째 세례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세례가 이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 모임에도

기웃거렸습니다. 복음 진리의 바탕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스카르 형제는 카톨릭 성당에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시절 때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문제로 인해 작년, 재작년 세례받기를 거부하다가 이번에는 죄사함을 확신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첫부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연락을 두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레티시아 자매는 12살 외아들을 가진 미혼모입니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학졸업을 했고, 능력과 재주가 많습니다. 10대 때 우울증에 빠져 30년 이상을 고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나 자매는 레티시아 자매의 어머니입니다. 영국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고 교양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고, 화초와 꽃, 동물들을 잘 키웁니다. 23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면서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딸의 권유로 성경공부와 예배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십일조나 월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위축된 경제와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10%를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법안을 재정했습니다.(보통 여자 60세, 남자 65세부터 연금 지급 받음) 일단은 서민들이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기니(결국 자기 돈을 찾아가는 것인데, 후에 받을 연금은 줄어 듬) 대형 TV를 비롯하여 전자제품들과 자동차 구입, 집수리나 건축 등을 하니 위축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로 남은 연금의 10%를 2021년 말까지 찾아가면 되는 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남미에서는 정치,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돈벌기가 쉽다는 생각으로 칠레로 이민왔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칠레 폭동과 2020년 Covid19를 경험하면서 칠레에 대해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아이티 형제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이런 중에 Thones 형제는 약 3년 반동안 떨어져 지낸 아내와 딸을 칠레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이티에서

칠레여행 비자를 주지 않으니 이웃 나라 도미니카로 가서 여행 비자를 받아 비행기로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서 버스 타고 육로로 칠레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태라 쉽지 않은 여행이 예상됩니다. 토네스 형제는 Covid19로 대면예배가 힘들게 되자 아이티(크레올어) 예배를 와샵(WhatsApp)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15명의 정도의 아이티 형제들은 토네스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예배당 목조건물이 많이 낡았고 벌레들이 갇아먹고, 수시로 발생하는 지진의 영향으로 천정과 연결되는 내부 벽이 휘어져서 붕괴의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예배모임 장소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올 12월 중으로 구예배당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외벽은 벽돌로, 천정은 철골로 기초를 잡고, 바닥은 세라믹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재비와 임금비 포함 전체 예산은 한화로 5천만원 (USD 45,000불) 정도입니다. 울산호계교회를 비롯하여 몇 분이 헌금을 해 주셔서 50% 정도의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리라 믿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장소로 쓰임 받고, 이웃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의 쉼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름이라 매일 30도가 넘어가지만,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 믿음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생명의 빛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2. 세례 받을 넬슨, 오스까르, 레티시아, 아나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충만 성령충만하길 기도합니다.
3. 곤살로(12세) 정신분열증 치료, 호세형제님 담석제거 수술(속에 4cm 담석 2개와 수많은 담석)
4. 5월부터 시작한 묵상(QT 사역) 계속 섬기길 기도합니다. (200여명에게 보냄)
5. 예배당 건축을 1월에 시작하며 합당한 일군들과 재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6. 판데믹 가운데 선교사들과 성도들 동네 주민들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사라 - 직장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배우길, 모세 - 지질학 실습할 회사와 장소 얻기를



C H A P T E R S E V E N

ITALY MISSION REPORT & NEWS

이탈리아 선교 보고 &
최신 선교사님들의 소식



Italy Mission Report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진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폴리캡)선교사가 2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에 이탈리아 CMI선교사 2차 미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주별 이동금지 제약과 일부 개인적 사정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면 - 온라인 연결방식을 겸해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선교의 리셋팅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평가됩니다.

이탈리아 첫 선교사로 "87년에 오신 정파울루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의 기본 레파토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인데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첫 순서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부부, 가족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새롭고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30대 중반 젊을 때 선교사로 나와서 30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땅끝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느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못함에 깊이 문제의식 갖고 회개하며 말씀을 마친 후, 권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섬기신 피자도 떡을 떼며 부부사랑, 가족사랑을 주제로 격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순서를 리셋팅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란 주제의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해서 망설임 없이 "예수님-사명-양-교회-가정, 친척-자녀-배우자" 순서로 적었습니다. 20대부터 선교단체에서 배웠고 선교지에서 25년 이상 배우고 실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자 강사분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쳐 주라고 하였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은 후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뒷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분들은 저 모델을 평생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모델이 스스로 번아웃(Burn Out)되고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배우자-자녀-친척-양들-사명-교회 순으로 사랑의 순서를 다시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와 지고자 했는데 30년 가까이 뼈속 깊이 셋팅된 습관이 쉽게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배우자와 다툼으로 사명포기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위기의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것을 짧은 시간이 해결하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겠지만 오직 성령충만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뼈아픈 조언은 그 어떤 선교의 스킬이나 노하우 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광장전도를 하며 새롭게 선교비전을 얻은 정파울루스, 리디아 선교사님 가정은 교회개혁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통해 보내주신 영혼들과 모임과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3가정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섬기는 저희교회는 지난해부터 예배와 성경공부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1월부터 개인 맞춤형 케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세례받은 분들과 기존 제자를 중심으로 매주 수요 그룹 성경공부 이외에 개인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1:1로 공부함은 정말로 한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선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방문식이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1:1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리타 자매님은 프리실라 선교사님이 가정방문을 하여 매주 목요일 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공부에 이혼한 남편이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레나 자매님은 매주



목요일 가정방문식과 교회에서 한나 선교사님이 공부를 섬깁니다. 자매는 성경공부 파일 겔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약속의 말씀을 써 놓고 믿는 두 자녀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첸조 형제님은 저와 매주 제자, 사역자 코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번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몸이 연약한 소니아 자매는 프리실라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 가운데 그 분야에 특별한 열정이 있는 남사라 선교사님이 매주 금요일 청소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해 성경공부와 인격적인 케어를 통해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들로 지어지길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교회 방향은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딤후 2:2)** 로 개인 맞춤형 케어를 통해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으로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저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택하시고 신실하게 여기사 직분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선교역사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찌에, Grazie!

Latest Italy News

원 폴리캡 선교사님이 흥 마가 선교사님께 전한 최근 반가운 이탈리아 선교사님들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기간에 이탈리아 로마 선교사들을 위해 미국과 GCM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로마의 아홉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화복과 진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 파울루스, 리디아 선교사님 가정이 98년 IMF 때부터 20년 넘게 선교회와 관계가 없이 보내며 여러 번 회복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왔는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정 누가 선교사 가정도 5년 이상 끊겼던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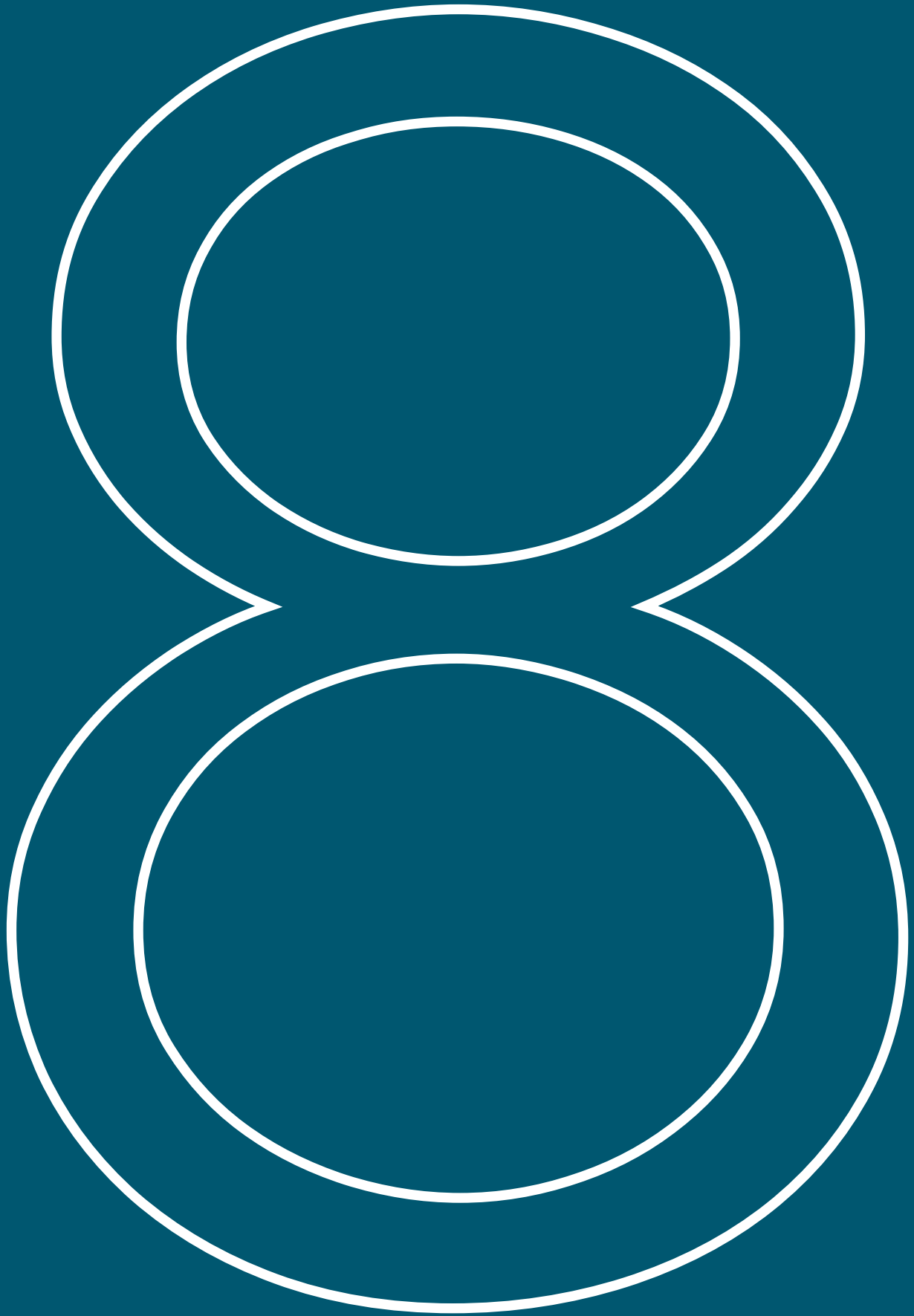
셋째, 또 우리 교회에도 현지 리더들이 굳건히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이 저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C H A P T E R E I G H T

K-NATION MISSIONARY TESTIMONY

K-Nation Missionary Testimony

이 간증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올리는 예배요 제물입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는 아마도 유럽과 비이슬람권에 계신 분들과 그 결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는 한국으로 찾아온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저는 3대 기독교 가정의 모태신앙인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방인의 땅에 와 살아보면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산골 중의 산골인 할아버지 댁까지 말을 타고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신 선교사님의 그 헌신이 지금은 5대까지 신앙의 가문을 만든 것을 생각하면 저도 복음과 사랑의 빛진 자 되어 척박하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온 집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일을 더욱 힘내어 감당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롬 10:15)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잘 성장하던 저는 19살이 되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늘 요구하지만,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나의 한계로 인해 절망감과 열등감 죄의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4년의 영적 방황 끝에 어느 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죄의식만 심는 종교라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도전했을 때 주님의 성경을 얼마나 읽었기에 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생생히 듣고, 지금까지 읽어도 모르겠으니 나에게 성경 공부를 해 줄 성경 선생을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 후 3일만에 어떤 분이 제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실제로 주님과 대화하고 응답을 받은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만큼이나 나에게겐 감격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나 돌아갈 나의 영적 ‘벤엘’이 되었고 의심과 갈등의 때에도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삶의 기준이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는 거의 목자님과 전쟁을 하다시피 말씀 안에서 나의 질문들의 답을 찾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으로 충만케 됐고, 평신도 목자로서

주13팀의 일대일을 섬길 만큼 즐거운 제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턴의 아내가 되어 가난과 고난을 친구삼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1994년 4월 남편이 K국 선교사로 결단을 했을 때 저는 무지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거기는 죽어도 안 된다며 결사 반대했지만 캐나다, 미국, 수리남, 인도네시아 등등에 지원하였으나 번번이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K국의 문을 여셨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2년을 먼저 나간 남편은 K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고 2년을 다니는 중에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1년 4개월만 더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몇 날을 기도의 씨름 끝에 “내가 연금을 의지하랴?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랴?” 하며 사표를 쓰고 1996년 4월에 가족이 모두 K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선교지로 나오면서 굳게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 온 후에는 절대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인턴이라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바람에 말로는 제가 안사람이지만 역할은 제가 바깥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깥과 안을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이드로 일하던 여행사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만 일해주면 노동 비자를 해결해 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해 왔습니다. 결국 가정주부 2개월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만 살겠다면 야무진 결심과는 달리 저는 선교지에서 여행가이드, 유치원 교사, 한국식당 아줌마, 국제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장, 세종학당 교사 등으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직장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잠언 16:9) 아멘!!

우리의 선교지 생활은 다이내믹했습니다. 기도 그룹에서 나누는 나의 기도 제목은 파도치는 바다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사는 이웃도 있는데 나에게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야속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IMF가 터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무릎은 꿇었지만, 기도는 안 나오고 선교지에서부터 한국까지 가족이나 교회, 아는 사람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면초가 길이 막혔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기도가운데 내게 열린 유일한 길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라” 하늘에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기적같이 순간순간 나의 도움이 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한 형제와 함께 대학 앞에서 문방구집을 열었는데 어느 날 경찰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을 본 덩치 큰 우리 형제는 몸을 휘청거리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나중에 형제의 이야기는 너희가 K국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암튼 경찰서로 붙들려간 우리는 그 형제와 각각 다른 방에서 따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형제의 아버지가 우리를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가 그들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진술해서 무혐의로 풀려났고 이 사건 이후 우리의 사역의 중심지가 A 대학에서 B 대학으로 바뀌었고, 문방구집에서 식당으로 우리의 자비량 방향은 급전환을 했습니다.

식당 주변은 옛날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의 터전이었을 뿐 아니라 모 종교 성전 바로 밑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그 종교 세력의 센터였습니다. 이런 환경과 사람들과의 공존은 조용하고 책만 읽고 산 우리들에게겐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자주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고 말하는데 저는 유목민족의 삶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늘 갖고 살고 있으니깐요.

식당을 운영할 만한 음식솜씨와 경영능력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은사가 전혀 없는 저는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도 음식 솜씨는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경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선 3번의 잊지 못할 꿈을 통해 식당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넉넉한 운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사 28: 29) 아멘!

식당 운영이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 가던 어느 날 한밤중에 돈 3만 불을 가지고 모 종교 성전 앞 광장으로 이틀 후 자정에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알려주고 학교를 안 보내거나 조심하라 할 수도 없어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같이 하였으나 집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순간순간들이 두려움으로 초긴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약속한 날밤,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복경찰 한 팀과 남편이 같이 자정에 작전을 벌였지만 나타나지 않아 며칠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몇 번의 전화 목소리를 통해 누구인지 짐작하고 결국 경찰과 함께 검거하였고 무사히 힘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선교지에서 겪은 가장 힘든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네 오른 쪽에서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널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시 121:5) 아멘!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 번이나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식당 옆집 아저씨가 남편에게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옆의 홀 하나를 사용하던 이웃에게 밀린 가겏세를 좀 달라는 말에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린 후 경찰에 신고하러 갔는데 오히려 경찰이 남편을 바로 임시 철창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를 공격한 이가 우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마침 식당에 있었던 변호사가 증인 겸 변호를 해 주겠다고 해서 조금은 안심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역시나 그는 법정에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저는 주님이 친히 진실을 밝혀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이 땅이 얼마나 정의와 진실이 없는 땅인지요. 긴장의 시간이 흐른 후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야 우리를 변호해주겠다고 변호사가 가운의 단추도 채 채우지 못한 채 혈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데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시 9:8)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통해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낮의 해 같은 공개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밤의 달 같은 내적 공격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고, 안정된 일을 할 수 있게 직업과 직장을 구해주고, 신학 공부를 하여 사역을 할 수 있기 까지 10여 년을 도왔던 한 형제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며 떠나갔습니다. 지나간 선교지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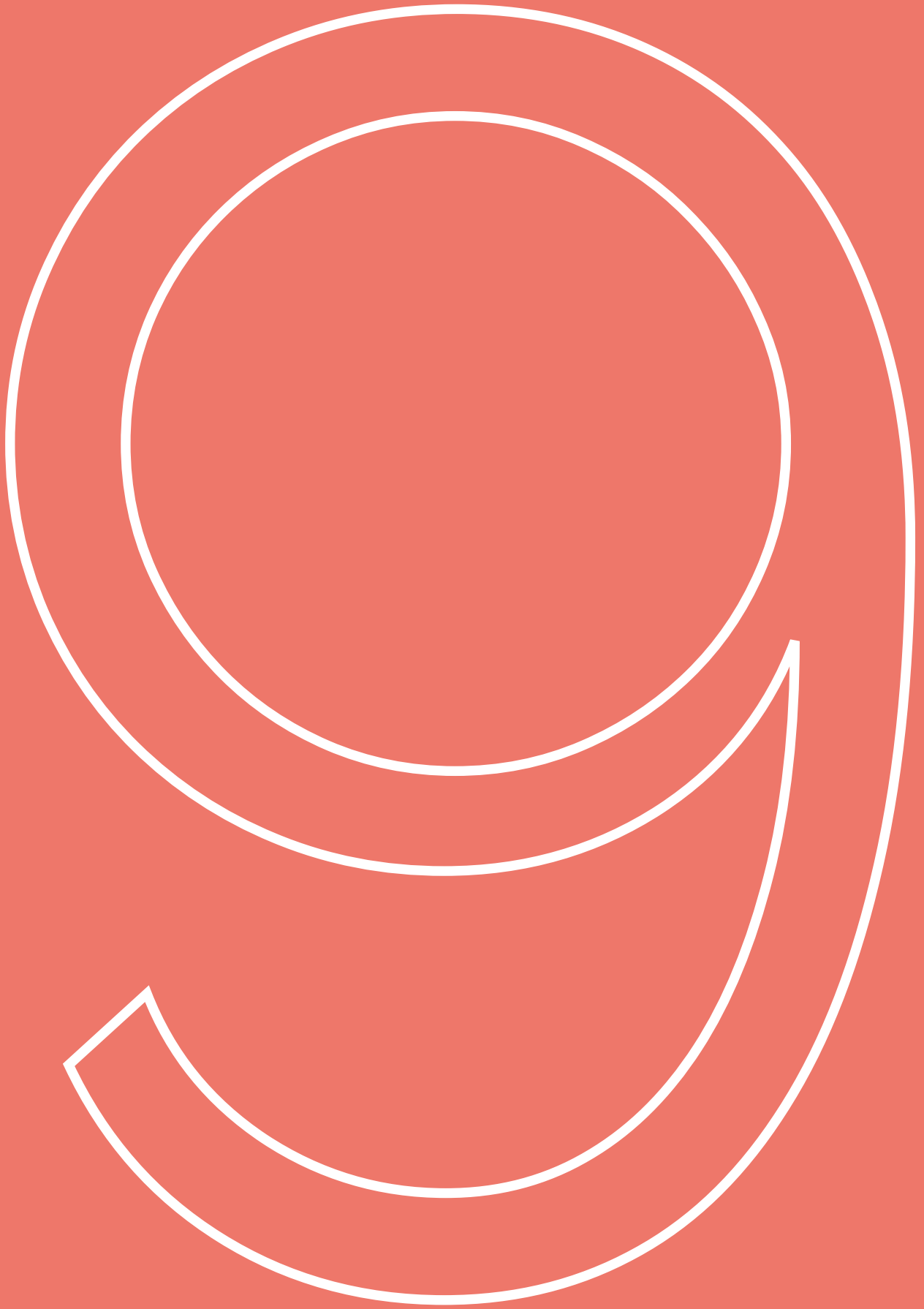
저는 선교지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다면 김 선교사님 가정과 지난 20년을, 우리가 도왔던 그 제자와 함께 10년이 넘게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관계 속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잘 보고 있는 터라 더욱 감사와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이 내려다보이는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까지! 라고 선을 그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선을 그어주심으로 자기 의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9월엔 코로나로 생명이 위급할 때에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실제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럽과 전 세계의 귀한 선교동역자님들께 저희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저는 자신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인생을 통해 주님께 드릴 나의 고백이 있다면 그건 시편 23편입니다.

선교지에서 살기에 나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혜도 용기도
인내심도 믿음도 기도도. 그러나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목자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의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지인과
공동체로 양 농장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 일을 시도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새 역사를 향해
도전하여 또 새로운 얼굴로, 새 이름으로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안의 모든 형제가 올 한 해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C H A P T E R N I N E

EUROPEAN MISSIONARY EDUCATION REPORT

유럽 선교사님들의
교육 세미나 보고

European Missionary Education Report

유럽 선교사님들을 교육 세미나가 지난 2월 15, 16일에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비엔나에서 사역하시는 양 다윗 선교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아래에 실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 세미나에서 유럽에 계신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와 성장

양 다윗 선교사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25년 간의 선교사의 삶을 뒤돌아 보니 4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첫째 부정적 생각의 파쇄

우리 안에서 형성된 생각의 틀은 다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됩니다: 부정적 경험, 부정적 생각, 부정적 언어, 부정적 확신, 부정적 믿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15년의 선교 생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저의 생각 속에 한가지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선교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선교가 안되는 이유를 찾아보니 총 14가지나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수십 년 동안 이 한마디가 선교사들의 삶을 대분해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금식하며 세탁볼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품은 믿을 수 없는데 당신의 말은 믿겠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내면으로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겠구나.” 이 한마디의 오스트리아 현지인 할머니의 말을 통하여 저의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던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파쇄되었습니다.

둘째 성령의 기름부으심

제가 처음에 오스트리아와 왔을 때 총 7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부장이었던 백 다니엘 선교사가 어느 날 오순절 성령론을 이야기하며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격론 끝에 한 아프리카 선교사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하였는데 안나 선교사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안나 선교사가 방언을 받았고 병원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의 공동체는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깨어지게 되었고 저희 가정을 제외한 모든 선교사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여 년 동안 성령에 관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다 성령론이 정리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의 치유사건을 통하여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째 내적 치유를 통한 관계성의 회복

가끔 이루어지는 부부싸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치유받지 못한 상한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적 치유에 눈을 뜨게 되었고 부부간의 진정한 연합, 자녀들과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간증이 생겨났고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담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뿌리를 찾은 다음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온전히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상담과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체험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중에는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9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10년 만에 25명, 50명, 90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를 3번이나 이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 참석 인원과 교회 크기가 2배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온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 최고의 축제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예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10

C H A P T E R T E N

**CMI'S
50 YEAR
HISTORY
OF WORLD
MISSION**

CMI 세계선교 50년 역사

CMI's 50 Year History of World Mission

CMI 세계선교 50년 역사

서독선교 개척기(1970년대)

서베드로 목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19-20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이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전 1:8)** CMI(개혁 UBF)의 세계선교 역사는 한독 노무계약에 따라 서독에 간호사로 파견되는 평신도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는 1969년 7월 17일, 학생시절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서독에 취업하여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선교사명을 주고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CMI의 세계선교가 2019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여름수양회를 독일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CMI의 평신도 세계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독일개척 50주년 기념수양회" 소식을 먼저 알리고, "CMI 세계선교 50년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1. 독일개척 50주년 기념수양회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1892-1982)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근대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음으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하라" (수 4:6-7)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고 기념하는 것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9년 독일여름수양회를 통하여 독일개척 50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CMI 독일개척 5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수양회는 국내외 153명 (독일 106; 미국 13; ESF 13; 한국 9; 헝가리 4; 영국 4; 홍콩 2; 중국 2)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8월 1-4일, 프랑크푸르트 가까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슈미텐(Schmitten) 작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수양회 전체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Unverzagt vorwärts!)" 이었습니다. 성경말씀은 여호수아서 1:9절을 요절로 하여, 3박4일 동안 여호수아 전권을 여섯 강의로 나누어 공부하였다. 주제 강사들은 50주년 기념특강(M. Paulus Kwon) 외에는 모두 독일개척의 계승자들인 선교사 2세들(Johannes Kim/ Daniel Kwon/ Josua Hong/ Matthias Hong)과 독일 현지목자들(대회장; Andreas Schmeinck)이 주인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독일 수양회는 첫째로 선교사 2세들과 현지 목자들에게 CMI의 역사관과 캠퍼스 미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CMI 본부에서 한국교회 백년사(84년) 속에서 시작된 CMI 세계선교 50년 역사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받아만 오던 역사, 피선교국에서 주는 역사, 세계선교 국가로 전환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한국교회사의 전환점에서 CMI 개척역사에 헌신한 선교사들(제1대 목자 이화자, 제1대 지부장 김숙철, 제2대 지부장 허유강)을 대표하여 허유강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30년간 선교사 생활을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30주년 근속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MI 한국본부는 독일 선교사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독일개척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축제는 다음날 열리는 우리 2세들의 YCC 창립 15주년 역사의 뿌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독일선교의 주체가 1세대 개척선교사들로부터 현지 목자들과 선교사 2세목자들로 계승전환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수양회 진행과 메시지를 독일개척 1세대 선교사들이 감당하였는데, 이번부터는 완전히 독일 현지목자가 대회장이 되어 현지 목자들과 선교사 2세목자들이 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번 주제 강사들은 능통한 현지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척선교사들은 캠퍼스선교에 있어 선교사로서 복음신앙과 정체성(부르심)은 분명하지만 현지화(언어, 문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지목자들과 선교사 2세목자들은 선교 현장에서 태어나 현지교육을 받은 자들로 현지화가 잘 되어 현지 캠퍼스 미션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지목자들과 2세목자들이 개척선교사들로부터 복음신앙과 불타는 사명감을 계승한다면 다음 세대의 캠퍼스 미션을 통한 제자양성과 세계선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선교사 1세들과 2세들이 함께 캠퍼스 미션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비전팀"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CMI는 지난 20년 가까이 개혁과정에서 캠퍼스 미션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캠퍼스 개척을 통한 제자양성이 약화되어 현지목자들이 떠나고 한인교회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서적으로 연구하여 캠퍼스 미션이 회복되고 성장과 발전하는 선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회 동안 비전팀이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캠퍼스 미션을 연구하고 발표하며 토론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CMI는



50년 전, 한국 CMI 세계선교의 첫 개척지로 세계선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독일 비전팀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세계 캠퍼스 미션을 통한 제자양성의 모범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로 이번 수양회는 유감스럽게도 축하객을 초청하지 않은 독일 단독수양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개척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한국 시니어 목자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은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의 13명 리더들이 CMI 독일개척 50주년을 축하하고 동역하려고 참석하였습니다. ESF의 원로 장창식 목사를 비롯하여 중심리더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ESF(1976년)는 CMI(2000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UBF를 개혁하려다가 분리된 학생복음운동 선교단체입니다. ESF는 지난 40여년간 한국 캠퍼스 개척에 집중하여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캠퍼스 제자양성에 이어 지금은 세계선교 개척기에 와 있습니다. 반면에 CMI는 세계선교는 한국의 10대 선교단체 중에 상위권이지만 한국내 캠퍼스미션은 그동안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제야 새로운 회복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ESF와 CMI가 만나 국내외 선교를 서로 협력하기로 결의하는 뜻깊은 기도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독일개척 50주년 기념 수양회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현지 독일목자들과 선교사 2세 목자들(YCC)에게 CMI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2. CMI 세계선교 50년 역사

제1장 CMI 평신도 세계선교 시작

첫째; 1960년대 한국교회 현실; CMI 세계선교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모든 교회는 2만여명의 선교사들을 세계만방에 파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형교회들은 단일 교회에서 수 백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월간조선 2월호 "기독교선교사2만명 파송시대의 명암"이란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선교 2대강국(인구비로는 세계1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1일자 선교신문(宣敎新聞)에 의하면 "2019년 한국 선교사가 171개국에서 2만8천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CMI가 1969년 한국교회 최초로 서독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축복입니다.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정권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해외선교사들에 의존하는 낙후된 피선교국이었습니다.

한국개신교 역사는 1885년 4월 5일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H.G. Underwood; 1859-1916), 감리교 아펜셀러(H.G. Appenzeller; 1858-1902)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816년 9월 5일 영국 해군 대령 맥스웰(M. Maxwell)이 서해 탐사를 위해 서천 마량진에 들러 마량진 첨사인 조대복에게 성경(King James 1611년 초판)을 전달하였습니다. 1832년 7월 독일 루터교 선교사 귀즐라프(K.F.A. Gützlaff; 1803-1851)가 홍주(현 홍성군)의 고대도에 정박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한문성경, 전도문서, 서적과 약품을 전달하고, 감자와 포도주 재배법까지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주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에는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Robert Thomas; 1840-1866.9.2.)가 대동강 가에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처참하게 순교 당하였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성경말씀과 순교자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한국교회는 선교 23년이 되는 1908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첫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어서 1912년 대한예수교 창립총회에서는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다음해 1913년 제1차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제1차 산동개척은 질병과 귀국으로 끝나고, 제2차로 1917년 방효원(1886-1953), 홍승환 목사가 파송되어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제3차로 1935년 방효원 목사의 아들인 방지일(1911-2014)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1957년 공산당 정권에 의해 추방되기 까지 산동성 선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제1회 창립총회부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세계기독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선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과 더불어 1945년 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한국교회는 가혹한 박해를 받으며 연단되었습니다. 무단 통치기(1910년대), 유화적인 문화정치기(1920년대), 혹독한 탄압시기인 침략전쟁기(1930년대)를 거치며 불로 연단되었습니다. 마지막 2차대전의 시기에는 "일본식 기독교"라는 미명아래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정교분리(政教分離), 정교유착(政教癒着)의 냉온정책(冷溫政策)으로 교회를 더욱 간교하게 탄압하며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기독교사상 2013년 2월호) 이런 연단의 시기에 한국교회는 오히려 민족주의로 더욱 뭉쳤고, 성서번역과 교재개발을 통해 복음신앙과 순교신앙으로 내적인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이미 시작한 중국선교는 지속되었으나 그 이상 세계선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1945년 해방후 남북분단으로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건국되었으나,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공산주의 일당독재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후 해방을 맞이한지 5년이 못되어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북한 모두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남북한 전쟁시기 한국교회는 공산당에 의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공산당이 점령한 북한에서 장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남한으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미국, 호주, 유럽 선교사들이 가난한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며 교육, 의료, 고아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한국전쟁 후에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거지가 된 한국에 들어와 한국재건을 도와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호물자(식량, 우유, 초코렛, 헌옷 등)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60년대 까지도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개척교회들이 자체적으로 30 퍼센트 헌금을 하면, 선교사들이 본국에 가서 70퍼센트를 모금하여 건축하였습니다. 한국 목사 전도사들은 선교사가 월급 50불만 주면 통역하며 가방을 들고 따라 다녔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거치며 70년대 까지도 봄학기 외에는 민주화운동 데모를 한다고 정상수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 한국인들 마음에는 사대주의, 패배주의, 열등감이 지배하였고, 코리언 따임(지각), 어글리 코리언(월남전) 이라는 말이 유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 까지도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이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이나 선진국에 유학이민하려고 하여, "Brain Drain", "딸라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유학이나 여행을 엄격하게 규제하였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세계선교를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선교는 부자나라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만 해당된다는 확고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CMI 첫 평신도 선교사 파송; CMI는 1961년 UBF (한국대학생성경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UBF 는 처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의 광주(배사라; Sarah Barry:1930-), 전주, 대전(한미성; Melicent Huneycutt Vergee:1926-2020) 에서 활동하는 미국선교사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광주 배사라 선교사가 한국인 천목사에 이어 이창우 전도사와 동역하며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을 개척하였습니다. 얼마후 한국대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전국 캠퍼스 개척을 시작하여 1964년 성탄절에는 전남대 첫 졸업생인 정수일 목자(당시 호칭은 총무, 또는 선생님)를 대구에 파송, 1965년 3월 대구 경북대학을 개척하였습니다. 1965년 10월 1일에는 대구의 정수일 목자를 대전에 인사이동하여 1961

년부터 시작한 대전UBF를 계승하였습니다. 1965년 개척기 약 6개월간 배사라 선교사가 영어성경을 가르쳤고, 대전대 출신 김정일 목자가 정수일 목자와 동역하여 대전개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1967년 2월에는 정수일 목자가 사임하고, 충남대 3학년인 서덕근(서베드로) 형제가 학생총무로 대전CMI역사를 계승하였습니다. 1969년 서베드로 총무가 졸업할 때 대전CMI는 "7인의 선교사 파송예배"라는 이름으로 졸업예배를 드렸습니다. 졸업예배를 선교사 파송예배로 드린 것은 졸업생은 누구나 직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그 해 2월에는 서울 종로본부에서 동남아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김세운(서울대 65학번)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세운 선교사는 싱가포르에서 DTC 훈련을 마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당시 수 년간 (64년 제주에 김한옥 선교사 파송후) 동남아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동남아 선교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 보다는 모두 허탈감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행전 16: 6-7)

이런 시기에 CMI 대전에서 간호대(현 대전과기대) 졸업생 가운데 3명의 학사들(서인경, 이화자, 설동란)이 서독에 간호사로 취업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CMI 대전은 그해 졸업예배를 선교사 파송예배로 드렸던 시기로, 서독에 취업하여 가는 것은 당연히 선교사로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기도제목은 <성서한국 세계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선교사업부 차트에는 <성서한국 동남아선교>라는 제목을 붙이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동남아선교라는 고정관념에 매여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서독선교가 감히 세계선교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CMI 대전 목자는 서독 선교사를 대전 선교사로 보내는 것보다 전국기도 지원을 위해 종로 본부에 선교사 교육을 위탁하였습니다. 서독선교사들은 몇주간 종로센타에서 배사라 선교사와 이사무엘 목자의 사랑과 말씀을 받으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종로 형제자매들의 관심과 기도를 받으며 일용할양식 공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15일

(화) 오후 종로본부 센타에서 조출하지만 뜻깊은 파송예배를 보았습니다. 본래 파송 메시지는 UBF 대표가 준비하다가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대전 목자에게 부탁하여 서베드로 목자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베드로 목자는 사도행전 1:8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파송예배에 참석했던 정수일 목자(김포공항 공군의장대 근무)는 메시지를 잘 전했다고 격려하였고, 종로 학생회 선교사업부 부장이었던 이병두 형제는 "오늘 파송예배가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개발공사 계획에는 다음날 16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우천관계로 하루 연기되어 7월 17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MI(개혁 UBF) 첫 평신도 선교사들은 1969년 7월 17일(목요일)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서독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공항은 환송객들(가족들)의 눈물바다였습니다. 당시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공무가 없으면 비행기 타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은 한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슬픔으로 눈물의 환송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공항출구로 나가 얼마간 걸어서 비행기 트랩에 올랐으며, 가족들은 다시 50원 입장료를 내고 환송대에 나가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손수건을 흔들고 또 눈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런 때 CMI대전 선교회에서는 자랑스런 선교사를 김포공항에서 기도하고 파송하였습니다. 서독에 도착하자 서인경, 이화자 선교사는 서독 중부 도시 부퍼탈(Wuppertal) 시립병원으로 배정되었고, 설동란 선교사는 다른 도시 Eikelborn에 도착하여 평신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선교사 파송할 때, 김포공항은 눈물바다였지만, 얼마 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찬송바다가 되었습니다. (70년대는 서독 중심, 80년대는 미국 중심, 90년대는 공산권으로 확장 되어 거의 매주 공항 파송예배를 드리다 얼마 후 공항당국의 권유로 찬송 없는 기도회로 전환됨)

한국대학선교협의회(CMI)는 동남아 선교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의기독교 선진국인 서독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심으로 한국대학생들에게 세계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난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대학생들에게 동남아는 경한 일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 애쓰되 성령이 허락치 않으시던 그 밤, 마게도니아 선교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여 소아시아를 넘어 대로마의 관문인 빌립보를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개척은 아시아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서구교회로 발전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대학생들의 서독선교를 통해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라는 말도 감히 사용하지 못하던 한국대학생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CMI(개혁 UBF)를 통한 서독 평신도선교가 없었다면 CMI 세계선교 50주년(동구헝가리 개척 30주년, 오늘의 5대양 6대주 개척)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20세기 CMI, 한국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말구유 역사입니다.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는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CMI를 축복하사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세계선교 최대강국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호; 제2장 독일선교 개척사/ 제1개척기(1969-1972), 제2개척기(1972-1978) 제3개척기(1978-)





C H A P T E R E L E V E N

GLOBAL CMI NEWS REPORT

GLOBAL CMI 소식 보고

Global CMI News Report

• Updated World mission support

The COVID-19 pandemic has inflicted economic difficulties on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Global CMI is actively engaged in fundraising campaigns and efforts of gathering membership fees to participate in the difficulties of missionarie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and alleviate their financial quagmire. Details of our activities are as follows:

1. **General Mission Support:** Global CMI has the policy of using the entire membership fee (100%) paid by members for world missions. As of the end of 2020, we have supported three nations, such as Argentina, Vladivostok, and Jordan, although the amount of support for each region is less than \$1,000. Support for Moldova is on hold because we have not found a proper wire transfer process to Moldova.
2. **Special Mission Support:** In case of emergency, we provide special purpose offerings regardless of the existing budget. After Covid-19 occurred, missionary Joseph Kim from Toronto, Canada, sprang up to a quick action in support of Turkey. Following his initiation for support, an active fundraising campaign took place on continents such as Europe, Korea, North America, and Australia. A total amount of \$42,807 was raised and sent to missionaries in six countries including Italy, Czech Republic, Vladivostok, Chile and “I” nation.
3. At the end of 2020, missionary James Hwang in **Vladivostok**, Russia, was diagnosed with COVID-19, and an emergency fundraising campaign was launched to cover his medical expenses.
4. The second fundraising campaign in 2021: Since the Italian government ended its financial support to the citizens at the end of March, 2021, there was a financial need to support missionaries in Italy, who were still struggling in the wake of the pandemic. The **second fundraising campaign for Italy** began in North America in early March to support the cost of living for Italian missionaries. A certain amount of fund was provided to missionaries in Estonia, Czech Republic, Prague, and Malaysia in Asia. Further fundraising campaigns for the missionaries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other nations are on development in Australia.

Finally, starting with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in Sydney, Australia in January 2020, the total amount of global mission assistance to date is \$78,300 and is projected to exceed \$100,000 by the end of April, 2021.

- **The Young Leaders meeting** is taking place with continental representatives such as Moses Hwang, Emily Kumagai, Mathias, Victoria, and Gospel Kim. In the future, we pray that the second generation and young leaders, including those in the United States, are actively connected and communicated for fellowship.
-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CMI missionaries has begun first for the missionaries in Europe. The first session was done by Missionary David Yang's lecture in February, and the second session was done by Pastor Jin-Hwa Jame Lee with the topic of "The Holy Spirit". The future sessions will be:
 - 4/10: "Community Church" by Pastor Jung-Oh Ku
 - 4/17: "Worship & Preaching" by Pastor Jung-Oh Ku
 - 5/15, 22: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es I & II" by Missionary Lukas Park
 - 6/12, 19: "The Gospel of Matthew" by Prof. Dae-Hoon Kang
- We are participating in **prayers for the health** of CMI missionaries and their families from all over the world.
 1. Rev. David Lian of Myanmar underwent heart surgery.
 2. Shepherd Geoff Luellen of Madison, USA, fell in an accident and severely injured himself on his forehead. We are praying for his recovery in health.
 3. Missionary Elijah Jo, who was actively ministering in "C" nation, is being hospitalized for stroke. His eldest daugh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MI) is taking care of him now. We are praying that he will be healed quickly and move on to a new mission field.
 4. Peterly, son of Enoch, a shepherd of missionary Rebecca Kim's church in the Dominican Republic, is suffering from a rare disease. It is our prayer that he be fully restored.

5. Missionary Andreas Han in Germany is struggling with pancreatic cancer.
 6. Missionary Grace Bang in Australia is struggling with breast cancer.
 7. Missionary Lydia Park of the Dominican Republic was found to have a bump around the rib under her chest. We pray that she may be diagnosed well to receive a proper treatment.
- **Dr. Daniel Shin** is planning a health consultation and treatment for missionaries in collaboration with several other doctors.
 - This is the **news from “K” nation**:
 “Hello. Good morning. Both of us and the family of Teacher are on a financial diet. Most of the teachers in the city of my residence are in the similar situation, so I am rather comforted. The Teacher is grateful that he can make side dishes and deliver them to the Korean people to cover the living expenses, but he is concerned about the cost of education for his children. And I am working in a farm, but the financial system will work in a way to make the income generated in a year, which makes me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situation. Even so, we are grateful that Gyeongju Mission Church is paying the rent for the church. As soon as we came back from Korea, we moved in to the church. As my family uses the downstairs as home, the upper floor is used as the church hall. However, face-to-face service has been suspended for a year. Cell meeting takes place on our home and the hall is used for prayer meetings with the Teacher once a week. My wife resigned from King Sejong Institute at the end of last year. These days, she is trying to offer a private tutoring for income.” (Missionary L)
 - Report of the ministry of Missionary Lucas Koh in Malaysia.
 “Shalom, today, after two months of suspended worship services, PJC saints resumed a face-to-face worship with the title “Blessed Hopes of Saints” on Thessalonians 4:13-18 “Blessed hopes of saints”, which gave us a great joy. Six adults, and eight Sunday School students attended the

service. The worship was followed by lunch fellowship, and C2C training. I finished the C2C evangelism outline for the newly introduced couple Horiuchi-sang, and today, through the testimony and in-depth process of the Satomi-sang, we read the related scriptures in the first part through the guidance of the Emi-sang. We ended up praying together for Sara and Hoshi-gun's mother, Masae-san, and Horiuchi-san's company colleague, Yamamoto (Tomoko). We pray to lead them to church. Please pray for the PJC Church to be well trained in C2C and T4T so that we can fulfill their mission of preaching the Gospel to 4,000 lost Japanese souls in Penang."



- The first child of the Pastor Gustavo and Ruth Salas of Argentina was born on March 8, 2021. The child's name is Israel Salas. Both mothers and babies are healthy. Congratulations!
- Please keep praying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and the safety of Christians. Pastor L's letter:
More than two hundred protesters have been killed since February 1. Every night the soldier's petrol and arrested some young people. The military are much in need of more soldiers. They are recruiting new soldiers. The regime announced to one of the parties called USDP which supports the regime that all young people from this party must join the army. Yesterday, 200 young people were arrested in Seihkanta block and forced to join the army. Every night we hear shooting and explosions. Most of the ministers in Yangon fled away continuously. We are also invited to do the same. But, we will never flee because we have our people here. If running away, we all run. We cannot leave orphans and others.

We are still trying to have only one pair of sleepers at home. I am much better after taking medication for three days already and two more months to go. Please remember in your prayers. The rest of my family members are doing well in the Lord. We got two new orphans. They were admitted to another orphanage home. That orphanage home stopped running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all of them should go back to their relatives. But two of them have no place to go back. Therefore, two of the new orphans were admitted again yesterday. I will send you a picture of them and their bio later.

We still run our Bible school but four of our students already returned home because their parents requested us since Yangon is not safe. 13 are still studying. Most of them are final year students. They want to graduate regardless of the situation. We all faculty members agree with them and still run the school.

Our daughter churches are still closed. One of our pastor's family (Pastor Cung Hun Lian family) tried to run away since their place is very dangerous now. There was martial law claimed in their place by the regime days ago. Because of the situation, we have no longer heard about the infection of COVID. We think that the virus also gets involved in CIVIL DISOBEDIENCE MOVEMENT. No news about this virus in Myanmar.

In this junta rule, there is no law. You can be arrested any time. Therefore, we must pray and be wise.

- Here is a mission letter from [Missionary Jose Jung in Chile](#), whom we started supporting last year.
Hello! Greetings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for supporting us with prayer and love for the Chilean mission. I pray that you may continue to live a blessed life overflowing with the grace and peace that the Lord provides always to each and every precious missionary co-worker.

Before coming to Calella, I served small-group community house churches in the neighborhood for many years. At the same time, I visited and looked after churches in various reg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hile. As a denomination coordinator and coordinating missionary, we had fellowship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various regions and visited the churches in the village of Mapuche (inhabitants of Chile), 1,000 km to the north and 800 km to the south. Among these, the first cases of Covid-19 confirmed in Chile in early March 2020 resulted in a lockdown in several cities. At the end of the summer vacation season (December-February),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has increased, so these days, an average of about 5,000 confirmed cases are recorded per day. The Concepcion area, where my son Moses is studying, and the Timuko area, where many Mapuche brothers and sisters live, are closed again around February, making it very difficult to visit. In March, many schools decided to resume in-person classes and then switched back to online classes. At the national level, COVID-19 vaccin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from February to elderly and educational workers.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I started church-planting of the Calella Light Church of Life (Iglesia Luz de Vida). When I started the church-planting ministry, I came to meet the church members every week, and had regular Bible studies on week days. In the process I came to know more about them. Most of them seem like very good people at first, but as time goes by, I realize that there is no hope on the people here except through Jesus and the Gospel. Sister Leticia has paid expensive counseling fees to a psychiatrist every week for more than five years due to her son's violence and psychopathic disposition. She once said, "I am indebted to you, pastor," articulating that the Bible study was more effective in healing power than consulting a psychiatrist. Later she turned away. She wrote a letter to me with complaints that her son was not getting better because I, the pastor, did not pray for intercessory prayer. And she said that her son had gone worse after coming to church. She said before that her son had received warnings from his teacher in kindergarten, because he had bullied other students. Nonetheless, she blamed the church in her gossiping. Her son was recently diagnosed as a psychopath and promoted to 7th grade (middle school freshman). He is usually quiet, but when he is offended by a trivial thing (for example, when he is not allowed to play a computer game), he turns into another person, threatening his mother and maternal grandmother with harsh words, and exerting violence. The father is trying to send him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she, his mother, is resorting to the Lord for help, even if her son's behavior becomes dangerous at times. It is generally said that once entering an i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get out of it for a lifetime.

Antisocial psychopaths don't feel wrong even if they caused an accident at no reason, and they react coldly with no remorse at all. On the other hand, a pro-social psychopath does not have a problem in social adaptation, but also contributes to society in some fields. This is the part that a missionary cannot correct or change. I pray every day for the Lord to intervene and heal those people. Most locals are mentally and spiritually ill as well as physically ill. Though they are viewed as optimistic people, there are people who

are easily angered, and depressed. Some children are gay, and superstitious. Even though they are found as guilty, they never admit it as their faults. History tells that they had lived as a colonial people for more than 200 years. The colonial system used to put the punishment and all the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it, once they admitted it as their fault. This may have a lasting influence on people here not to admit it at all, no matter how obvious the evidence is. It seems to be this influence that there are many nominal believers.

When the Lord sent His disciples to the world, he compared it to sending the Lamb among the wolves. In reality, when a sheep fights with wolves, it certainly loses it. But in spiritual warfare, we see a lamb wins victory in many cases. It is because the Lord goes ahead and fights for His sheep. Problems always arise among the sheep sent by the Lord. But in spiritual warfare, I come to realize that it is the ministry of the mission field to hold on a belief that if you fight with the Lord you will win. The day will come when troublesome problems will turn into a testimony that reveals the glory of God.

Brother Lewis' son Ignacio got into an accident. Ignacio fell down and rolled by himself in the mountains at dawn on February 14th, and thus severely injured his brain. He was in a coma for almost a month, and now in the process of coming into senses a little. His ears are capable of recognizing voices, and he would show small movements of his fingers. He has a hole drilled under his neck to feed nutrition with a hose. Brother Lewis is afraid that his son may become paralyzed or vegetative, and thus become a burden to himself. He struggles with doubts and fears. I am fighting a spiritual battle by challenging him and planting faith to him with the word that this sickness is not one to die, but for the glory of God. When you pray for Chile, please pray for Ignashio's full recovery, healing, and returning to the Lord.

The chapel construction work, which was planned to start in January this year, is scheduled to begin in June. It was not easy to meet construction masters who could build according to the blueprint. I met several people in this neighborhood

who say they are good at construction. Among them, I had an a contact with a construction man, who has supposedly built forty churches for more than thirty years. H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church was easy to do. But he wanted to stick with his own style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instead of executing the designed drawings. Since we said that we wanted the church to be built according to the blueprint, he left eventually, complaining that it was difficult to follow. When I met people from renowned architecture firms, they demanded more than twice the amount of our budget. Eventually, we decided to leave the job back to the team that built the training center some time ago. When the team finish their current working elsewhere, they would start to build our chapel right away. The cost of building materials rose 1.5 to 2 times more than before the pandemic a year or two ago, and it is a national situation that there is a lack of construction materials. We want to reduce the cost by making small changes to the blueprint, and by increasing the total space a little more. The chapel space will be about 13m x 9m.

On the last Sunday of December last year, three brothers and sisters were baptized except brother Nelson, because he was infected with covid-19 and thus unable to attend. Brother Nelson was baptized on the third Sunday of January this year. On the 4th Sunday of January, Florencia was baptized with infant baptism.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the family of Alex, Maria, and Alexandra started attending the service and have been attending well since then. On the 2nd Sunday of February, Brother Lewis's lover, sister Paola, began to attend services. Brother Lewis' ex-wife had been out of the house for five years. He waited for his wife, who lives with other men, to return. But after he realized that there was little possibility for her return, he completed a legal divorce in September of last year. After that, he started dating sister Paola and led her to church. In the past five years, brother Lewis has also fallen into the sin of lust several times. But he has been fighting spiritually to live a life that seeks for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irst, and then to obey the word of the Lord. Though we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period with Covid-19, God has made progress

in the ministry of the gospel. Haitian brothers and sisters continue to worship at WhatsApp, centered on Thrones. There are rumors that local people accuse a pastor for having a meeting at Pentecostal Church, about 600 meters from our church. We don't know if the Pentecostal Church caused a nuisance around the church or if it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maximum capacity of attendance. Now, in the pre-lockdown stage, our church continues to serve worship and prayer meetings while being careful not to violate the regulations.

With regards to the Quiet Time ministry, I am planning to edit and distribute a book by the end of April, since a Korean publisher, Aposento Alto (Attic Publishing, Co), contacted me with the news that it would publish a Spanish version of its own QT book from May this year in Chile. Since May of last year, I have been blessed to preach the Bible meditation to about 200 brothers and sisters and unbelievers directly or indirectly. I pray that I will be able to supply the words of meditation well to the end of April.

In June of last year, my wife started taking her blood pressure medications according to her doctor's prescription after struggling with high blood pressure in Korea. She was told that blood pressure pills must be taken for a lifetime, so she continued to buy and take the same pills when she returned to Chile in August of last year. Her blood pressure was controlled to a little lower level, but her pulse was too low and she became easily drained of energy. From two months ago, she reduced the amount of the medicine little by little because of her low pulse and draining physical condition. While she monitored her blood pressure every day, she took a diet by eating watermelon, corn, other fresh vegetables and fruits. After stopping the medication, her blood pressure and pulse returned to a normal state gradually, and then from a month ago until now, her blood pressure and pulse returned to normalcy. It is the wonderful grace of God. God protects us and gives us unlimited grace, so we are living through difficult times without much trouble. We receive this grace because you always pray for us.

This is our prayer topics.

- o All the saints grow up as disciples of the Lord and establish on this earth a holy community of faith and the kingdom of God.
- o Spiritual growth and maturity through constant 1:1 Bible study (brothers served by missionary Jeong, sisters by missionary Nam)
- o I may continue to serve as QT contemplation (Aposento Alto) book editing until April.
- o Gonzalo: living a normal life, not as a psychopath or as a disobedient and rebellious child. Ignacio: to recover a normal brain function and to receive a cure. Leticia, Isabel: treatment of depression. Brother Jose: removal of gallstones. Grandmother Sarah (99): Preparing to to to heaven. Christian (35 years old): find a spouse of faith (His daughter Anahis Anais (9 years old) lives with her mom).
- o May the building of the chapel go well (May God provide appropriate builders and necessary finances)
- o Sarah: to meet a man of faith for marriage. Moses: to graduate after finishing the last year of study in the 6th grade of geology

• **Italian news** from Missionary Polycarp Won to Missionary Mark Hong

During the coronavirus period last year, the US and GCM I prayed for and supported us, the missionaries of Rome in Italy, nine families in Rome experienced many beautiful work of recovery and progress.

Paulus Jeong and Lydia's family spent more than 20 years from the IMF in 1998, apart from CMI. Despite having several opportunities for recovery,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relationship while many years have passed in vain. So it seems to witness a miracle, since the family is actively involved in prayer for church planting.

The relationship with missionary Luke Jung and his family, who had been aloof for more than 5 years, is also renewing. Also, local leaders are standing firmly in our church.

Thanks be to the Lord that momentary difficulties and hardships have turned out to be great spiritual benefit for us. The prayers and love of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a great help, and become the blessings that lead to recovery. I pray that God may strengthen you. Thank you!

- Pray continuously for **Myanmar** and Pastor David Lian and MUST seminary. This is the news by M. Peter Chung:
“Today the military leaders came to MUST and demanded a list of all the residents including MUST students and staffs. Pastor David and his staffs worried about possible danger on them and decided to have the students for early graduation next Tuesday and each go back home. It's very sa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school without graduation ceremony after 4 years of hardships. But this is the best direction for their safety. Now only the orphans and MUST staffs will stay in the campus. CMI Shepherds are split to each way to live their own life. Weekly Bible study through email is the only way to support them. Please pray for them and Pastor David to overcome many burden throug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 This is the news from **M. Rebekah Kim in Dominican Republic**.
“Thank you for your prayers for Peterly. Now he has been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being recuperating at home. His blood pressure is still unstable but regulated by medication. He will be reexamined in 3/29, 4/5, 4/21. Please continually pray for his full recovery and his salvation. Thank you!”

Her eldest son Young Sung applied to UW-Madison and Edgewood College. Please pray for his full scholarship in either of them. (M. Mark Hong)

Global CMI 소식 보고

• 세계 선교지 지원 상황

Covid-19 의 팬데믹 현상으로, Global CMI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세계 각국 선교지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고, 회비 및 모금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선교지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전액(100%)을 세계선교에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비록 \$1,000 미만의 소액지원이지만, 2020년말 현재 아르헨티나, 블라디보스톡, 요르단 등의 3개 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몰도바는 송금방법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2. **특별 선교지원**: 비상 상황인 경우 기존 예산과 관계 없이, 특별 목적헌금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Covid-19이 발생하자 캐나다 토론토의 김요셉 선교사의 발빠른 터어키 지원을 시작으로, 유럽, 한국, 북미, 호주 등의 대륙에서 적극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나서, 이탈리아, 체코, 블라디보스톡, 칠레, “I” 국가 등 6개국에 총 금액 \$42,807 을 지원하였습니다.
3. 2020년도 말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황제임스 선교사가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비 마련을 위한 긴급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의료비를 충당하였습니다.
4. 2021년 2차 지원 모금운동 시작: 이탈리아 정부지원이 3월말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탈리아 선교사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2차 모금운동이 3월초부터 북미에서 시작되었고, 기타 유럽의 터어키, 에스토니아, 체코 프라하와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등의 선교지에 소정의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도미니크 공화국을 포함하여, 이러한 선교지들을 위한 모금운동이 향후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될 양상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020년 1월 호주 시드니에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세계선교지원금액이 \$78,300이며, 4월말까지 \$100,000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Young Leaders 모임** 이 황모세, Emily Kumagai, Mathias, Victoria, 김복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위시해서 이세와 젊은 리더들이 모임이 활성화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선교사 연장 교육이 유럽 선교사를 중심으로 일차로 양다윗 선교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앞의 ‘유럽 선교사들의 교육 세미나 보고’ 참조), 2차로 올해 3월 이진화 목사님의 성령론 강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스케줄을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0일, 주제: 가정교회 (강사 구정오 목사)
 - 4월 17일, 주제: 예배와 설교 (강사 구정오 목사)
 - 5월 15일, 22일, 주제: 초대교회사 I & II (박 루카스 선교사)
 - 6월 12일, 19일, 주제: 마태복음 (강대훈 교수)
- CMI 선교사님과 그 권속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전 세계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David Lian 목사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매디슨의 Geoff Luellen 목자가 넘어져 이마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국에서 활동하시던 조 엘리야 선교사님이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녀(서울대 CMI)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속히 완쾌되어 새로운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김레베카 선교사님의 교회 목동 에녹의 아들 피터리가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퇴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안드레아스 한 선교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그레이스 방 선교사님의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칸 공화국의 리디아 박 선교사님이 가슴 밑에 갈비 부분에 혹 같은 것이 발견되는데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 **Dr. Daniel Shin 선교사님**이 여러 의사와 연결하여 선교사님들의 건강 상담과 치료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 **K국 에서 온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들이나 샘 가족 모두 재정 다이어트 중이지요. 제가 머물고 도시의 대부분의 샘들이 같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샘네는 반찬을 만들어 교민들에게 배달하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자녀 교육비 걱정이고 전 농장에 오고 가지만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일 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도 경주 선교 교회가 교회 월세를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오자마자 교회로 가정을 옮기고 복층 중 입구층은 우리가 위 층은 교회홀로 있지만 대면 예배는 일 년이나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중심으로 한 셀 모임 장소와 한 주 한 번 샘과의 기도 모임에는 쓰임 받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말로 세종학당 사임했습니다. 요즈음은 개인 과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L 선교사)

• **말레이시아 고루카스 선교사님 사역** 나눕니다.

“샬롬, 2개월 만에 오늘 PJC 성도들과 오늘 살전 4:13-18 "성도의 복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감격의 대면 예배(어른 6명, 주일학교 8명)를 드리고 애찬과 교제와 C2C 훈련으로 모든 모임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나온 호리우찌상 부부를 위해 C2C 전도 개요를 마쳤고 오늘은 사또미상의 간증과 심화 과정으로 에미상의 인도로 1부의 관련 성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 사라와 호시군 엄마 '마사에 상'과 호리우찌상 회사 동료인 '야마모또 (토모꼬)'상 부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PJC 교회가 C2C와 T4T로 잘 훈련되어 페낭주 4천 명의 잃어버린 일본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르헨티나의 Gustavo와 Ruth Salas 목사 부부의 첫 자녀가 3월8일에 탄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Israel Salas입니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 미얀마의 민주화와 크리스찬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Pastor L's letter:

More than 200 protesters have been killed since February 1st. Every night the soldier's petrol and arrested some young people. The military are much in need of more soldiers. They are recruiting new soldiers. The regime announced to one of the parties called USDP which supports the regime that all young people from this party must join the army. Yesterday, 200 young people were arrested in Seihkanta block and forced to join the army. Every night we hear shooting and explosions. Most of the ministers in Yangon fled away continuously. We are also invited to do the same. But, we will never flee because we have our people here. If running away, we all run. We cannot leave orphans and others.

We are still trying to have only one pair of sleepers at home. I am much better after taking medication for three days already and two more months to go. Please remember in your prayers. The rest of my family members are doing well in the Lord. We got two new orphans. They were admitted to another orphanage home. That orphanage home stopped

running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all of them should go back to their relatives. But two of them have no place to go back. Therefore, two of the new orphans were admitted again yesterday. I will send you a picture of them and their bio later.

We still run our Bible school but four of our students already returned home because their parents requested us since Yangon is not safe. 13 are still studying. Most of them are final year students. They want to graduate regardless of the situation. We all faculty members agree with them and still run the school.

Our daughter churches are still closed. One of our pastor's family (Pastor C Ung Hun Lian family) tried to run away since their place is very dangerous now. There was martial law claimed in their place by the regime days ago. Because of the situation, we have no longer heard about the infection of COVID. We think that the virus also gets involved in CIVIL DISOBEDIENCE MOVEMENT. No news about this virus in Myanmar.

In this junta rule, there is no law. You can be arrested any time. Therefore, we must pray and be wise.

- 지난해 우리가 지원한 **칠레 호세 정 선교사님 선교편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와 칠레선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선교 동역자님 한 분 한 분께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깔레라에 오기 전 수년 동안 동네에서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동시에 칠레장로교 소속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심방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교단 코디네이터, 협력선교사 자격으로 여러 지역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북쪽으로 1,000km, 남쪽으로 800km까지 떨어진 마푸체(칠레 원주민) 마을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2020년 3월 초에 처음으로 칠레에 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러 도시에 전면봉쇄(lockdown)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12~2월)이 끝나니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요즘은 하루 평균 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아들 모세가 공부하는 끈셉시온 지역, 마푸체 형제자매들이 많이 사는 떼무고 지역은 2월 전후로 다시 전면봉쇄가 결정되어 방문이 참 어렵습니다. 3월에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결정했다가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나이 드신 분, 교육계 종사자들부터 먼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깔레라 생명의 빛교회(Iglesia Luz de Vida)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 성도들을 매주 만나게 되고 주중에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니 이들의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폭력성과 사이코패스 기질로 5년 이상 정신과 의사를 매주 만날 때마다 비싼 상담료를 지불하는 레티시아 자매님은 성경 공부가 정신과 의사 상담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빛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런 그가 목회자가 중보기도를 해 주지 않아서 자기들 병이 낫지 않는다고 글을 보내고, 교회 나오고 난 뒤 아들이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기 훨씬 이전인 유치원 때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담당 선생님께서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은근히 교회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최근에 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고 7학년(중1에 해당) 진급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사소한 일(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을 못 하게 할 경우)에 기분이 상하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엄마와 외할머니께 험한 말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친부는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니 기관에 보내려고 하고 엄마는 위험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관에 들어가면 평생 그곳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는 묻지마 사고를 쳐도 잘못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냉담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반면 친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면 사회 적응을 무난히 할 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사회 기여까지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고쳐 주시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화를 잘 내는 골뱅이, 우울증, 일부 자녀들이 동성연애자, 미신숭배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년 이상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그와 연관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전통 때문인지, 증거가 아무리 명백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많은 것도 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에 비유하셨는데 현실에서 양이 이리들과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역사가 많이 봅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 가운데도 늘 문제가 발생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주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하리라 믿고 나가는 것이 선교지 목회인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루이스 형제님의 아들 익나시오(Ignacio)가 지난 2월 14일 새벽에 산에서 혼자 굴러떨어져 뇌를 크게 다쳐 거의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에 있다가 이제 조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귀가 살아서 말을 알아듣고,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목 밑에 구멍을 뚫어 호스로 영양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반신마비나 식물인간이 될까 봐 겁을 내고 자기에게 짐이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힘들어 합니다.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믿음을 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익나시오의 완전 회복과 치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 1월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예배당 건축공사는 6월 정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계도대로 공사할 수 있는 건축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 동네에서 건축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30년 이상 40군데 교회를 건축했다는 분을 추천받아서 만나보니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자기 스타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고 싶다고 하니 마지막에는 어려워져 못한다고 고백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름있는 건축회사 사람들을 만나니 우리가 세운 예산의 2배 이상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 전에 교육관을 건축했던 그 팀에게 다시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 예배당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1~2년 전 팬데믹 현상이 있기 전보다 건축 자재비가 1.5~2배 정도 올랐고, 그나마 전국적으로 자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설계도를 조금 변경해서 경비를 줄이고, 전체 공간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합니다. 예배당 공간은 13x9 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계획했던 4명의 세례식에 넬슨 형제님이 Covid-19에 감염되어 참석을 못 하고 3명의 형제자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넬슨 형제는 올해 1월 셋째 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1월 넷째 주일에는 Florencia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월 첫 주에는 Alex, Maria, Alexandra 일가족이 예배에 나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2월 2번째 주일부터 루이스 형제 애인인 Paola 자매가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5년 동안 집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며 사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가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지난해 9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 자매를 사귀기 시작하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형제도 몇 번 정욕 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이티 형제자매들은 Thones를 중심으로 와삼(WhatsApp)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오순절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를 고발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주변에 민폐를 끼쳤는지 법적인 제한 인원을 초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봉쇄(lockdown) 전 단계에 우리 교회는 조심하면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계속 섬기고 합니다.

QT 사역은 올 5월부터 칠레 Aposento Alto(다락방) 출판사에서 스페인어판 책을 출간한다고 연락이 와서 올 4월 말까지 편집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부터 직간접으로 약 200명의 형제자매와 불신자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묵상 말씀을 전하는 복을 입었습니다. 4월 말까지 묵상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6월 아내는 한국에서 고혈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사 처방에 따라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8월 칠레에 돌아와서도 계속 같은 약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혈압은 조금 낮아지는데 맥박이 너무 낮고 기운이 빠져서 힘들었습니다. 2달 전부터 맥박과 힘든 몸 상태 때문에 약 복용을 조금씩 중지했습니다. 매일 혈압을 체크하면서 수박과 옥수수,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먹으며 영양조절을 하였습니다. 약을 중지한 후부터 혈압과 맥박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려운 때를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에 이런 은총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며 거룩한 신앙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 꾸준한 1:1 성경 공부로 영적성장과 성숙 (형제들은 정선교사, 자매들은 남선교사가 섬김)
- 4월까지 QT 묵상 (Aposento Alto) 문서 편집으로 계속 섬기길
- 곤살로: 사이코패스, 패륜아가 아닌 정상적인 삶 살기. 익나시오: 뇌기능 정상회복과 완치. 레티시아, 이사벨: 우울증 치료. 호세 형제: 담석 제거. 사라 할머니(99세): 천국 입성 준비. 크리스티안(35세): 믿음의 배우자 얻길(딸 Anahis아나이스(9세)는 엄마와 함께 삽니다).
- 예배당 건축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합당한 건축자와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길)
- 사라: 믿음의 배필 만나 믿음의 결혼. 모세: 지질학과 6학년 마지막 공부 잘 끝내고 졸업.

- 원폴리캡 선교사님이 마가 홍 선교사님께 보낸 **이태리 소식**
 지난해 코로나 기간에 이탈리아 로마 선교사들을 위해 미국과 GCM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로마의 9가정 가운데 여러 아름다운 화복과 진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파울루스, 리디아 선교사님 가정이 98년 IMF때 부터 20년 넘게 선교회와 관계가 없이 보내며 여러번 회복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세월이 지나왔는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누가 선교사 가정도 5년 이상 끊겼던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교회에도 현지리더들이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이 저희들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었습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탈리아 로마 CMI**에서 광고 하나 올립니다.
 로마 선교사들은 주로 여행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모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유튜브는 여가선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에 시도한 것입니다.

유튜브는 1년 내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의 시청시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고 영상에 광고를 붙여 조회수에 따라 이익금을 입금해 주게 됩니다. 유튜브를 해보니 좋은 영상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극복하기가 마치 밀림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고 계시지만 혹시나 아직 미처 모르신 분들을 위해 광고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5개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1. 퀴바디스Quovadis
2. 장화나라 권PD
3. 로마 오서방tv
4. Rugiada dal Cielo
5. 스페란자Speranza

구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에서 위 채널 이름을 검색하시면 영상이 뜹니다.
2. 영상에서 오른쪽 붉은 글씨의 '구독'을 한번 터치하시면 '구독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손해도 없으며 여러개를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독과 시청은 저희에게 직접적인 선교 후원이 됩니다. 또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원 폴리캡 선교사님의 "퀴바디스Quovadis" 채널이 곧 1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400명이라 한명이 아쉽습니다.

- **미얀마의 정국과 L 목사님, Mxxx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터 C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오늘 군경 리더들이 Mxxx 캠퍼스에 와서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소개 명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L 목사님과 스태프들은 신학생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다음 주에 조기 졸업을 시키고 모두 귀가 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13명의 졸업생을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캠퍼스에는 고아들과 Mxxx 스태프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CMI 목사들은 각각 흩어진 상태로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이 이들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수업/시험을 마치고 귀향하는 졸업생들과
흩어져 생존하고 있는 CMI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현 상황을
잘 극복하길 기도합니다.”

- 도미니칸 공화국의 김레베카 선교사님이 보내온 최근
소식입니다:

“피털리를 위한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오후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혈압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약으로 조절하는 중이고, 3월29일, 4월5일과 21일에
검진약속이 잡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털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뤄주셔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구원(회복)의 기쁨을
허락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레베카 선교사님 맏아들 **이영성**의 대학 진학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대학에 내고 UW-Madison
에도 원서를 내었습니다. UW는 입학허가 받아도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이곳 Edgewood College 원서 내도록 하였습니다.
멀시가 전액 장학금 받고 이 학교 다녔고 저희 조카의 딸이 전액
장학금 받아 공부하고 작년 졸업하며 밀워키 Marquette Univ
치과대에 다시 전액 장학금 받고 진학 하였습니다. 영성에게
전액 장학금 받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 마가
선교사)

- 다음은 로마 최리디아 선교사님 광장전도 일기입니다. (from
M. Abraham Lee)

“오늘은 어쩐지 하나님께서 양님들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 주실
것 같은 예감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라지오 지역은 zona rossa
(붉은 경보) 라서 토요일은 폐쇄되었지만 이태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석구석 장사꾼들이 생선도 팔고 봄이라서 고추,
상추 등 묘목도 팔고 카르초프도 열 개에 5 유로에 구석에서
팔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장엔 어린이들과
엄마 아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려듭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안니타, 클라우디아, 파비올라, 실바나, 카티아, 안나모니카,
삐에트로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 예상대로 양님들이 한꺼번에

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메니코, 사라를 비롯하여 톰슨과 안젤라, 펠리체와 루치아, 베로니카, 스테파냐 ,에바까지 한꺼번에. 모두 성격들은 강해서 말도 많고 이사야 53 장을 10 번 읽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들이 많고 의견들도 많아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뜻입니다. 합심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충돌 내지는 영적 수준이 너무 달라 합심기도는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올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시고 배를 강대상 삼아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향해 산상수훈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배고파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광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를 스쳐 간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